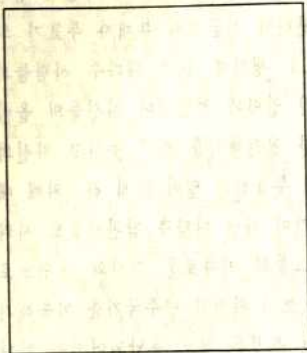


## 박 성 은 (당시 21세)

墓



- 1969년 12월 광주에서 출생
- 1985년 2월 광주 동성중 졸업
- 1989년 2월 광주 농업고 졸업
- 1990년 4월 9일 방위병으로 입대
- 1990년 5월 24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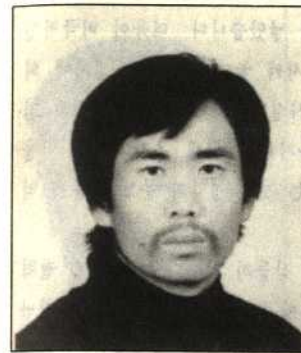
### ◎ 사건경위 및 의문점

고교시절부터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며 의식을 키워왔고, 방위근무 중이었던 90년 5월 사망 직전에 쓴 일기에는 "오월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적기도 했다. 제31사단 사단지할 11명참선 경비대대에 배치된 그는 부대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과 군부대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주일 가량 부대내에서 모종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후

외출하였으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가 5월 24일 새벽 5시 40분경 거주지인 광주 중앙교회내 유치원 놀이터에서 어머니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 이후 5월 15일 작성한 문건이 모두 분실되었고, 부대에서 일주일 이상을 억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김 병 구 (당시 35세)

墓



- 1955년 1월 21일 전남 장성 출생
- 1971년 5월 독학으로 김정고시 준비
- 1975년-76년 삼영산업(주) 근무
- 1980년 민주화 운동 참여  
개헌투쟁참여
- 1987년 6월 항쟁 참여
- 1988년 10월 18일 제13대 대선 및 총선 부정 고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서 투신
- 1990년 9월 2일 병상 생활 중 자결하여 운명

### ◎ 유고글

존경하는 애국청년 학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애국적인 정열과 태도를 존경합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용감히 일어서서 이를 개혁하려는 의지야말로 민족의 앞날을 밝혀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조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로 가는 길에 나의 몸을 재물로 삼아다오. 나는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우호적인 표시는 사양합니다.

김병구 드림

#### 【유서】

어머니 아버지 불효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진실을 밝히고 갑니다.  
오래 오래 편히 지내십시오.  
아우들아,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굳게 살아다오.

89년 9월 2일 병구 올림.

#### 【자작시】

##### 통일조국에서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땅  
우리는 하나  
발길은 산모퉁이를 돌아올게 아니다.  
돌고 돌아서 갈 길도 아니다.  
바로 서고 바로 걷자.  
가슴을 활짝 열고 대문으로 걸자.  
얼어붙은 山河여  
가슴을 달아 놓고 하는 손짓은  
진실이 아니다.  
통일이 아니다.  
뒤쫓 깔고 하는 소리는 말이 아니다.  
봄 바람아  
북으로 북으로 남으로 남쪽으로  
얼썩안자  
우리는 한겨레  
통일조국에서 만나자  
우리의 소원은  
統一

**【국민여러분과 각계에 드리는 글】**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며 국민주권을 돌려달라.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요구하며 사퇴를 촉구한다. 저는 지금 이 엄청난 진실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갈등과 고뇌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펜은 총보다 강하고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신념을 굳게 믿으며 저는 이 땅의 주권자 한사람으로서 지난 양대선거의 부정을 개인 차원에서 추적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원천적이며 전면적인 조작 선거였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가 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마다 민주주의 운운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을 짓밟아놓고 민주를 말하는 작태는 자기기만 행위이며 분노에 앞서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저는 지난 양대선거의 국민주권은 전면적으로 군사 독재자들에 의해 철저히 박탈당했고 은폐, 폐기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땅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들을 기만우롱하여 객체로 전락시키는 선거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비극적인 것은 지역감정을 심화 유도시켜 놓아 지역분열 정책에 의한 민족분할을 의도적으로 사실화시켜 그들 지배체제의 득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민족좌익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경악과 분노 슬픔을 억누를 길 없습니다.

조국이여, 국민이여, 잠들지 말아다오. 국민은 권력에 의한 들러리도 공모자도 방관자도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양대선거는 왜곡 변질되었으며 여론조사 방법을 원용하여 한국 걸림여론조사(참조) 조작되었습니다. 사전 선거구와 투표구별로 퍼센트를 안배하여 전면 조작, 투표함을 바꿔치기하였음을 확신하여 주장합니다.

**김 상 원 (당시 33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57년 5월 7일 출생  
1986년 3월 10일 영등포에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다가 연행됨  
1986년 5월 6일 식물인간으로 투병생활 중 운명  
1990년 12월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유죄가 인정됨

**◎ 동지의 삶과 죽음**

김상원 동지는 1986년 3월 10일 저녁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검문에 항변했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직할 중앙파출소에 끌려갔다. 경찰들의 무차별 구타로 앞이빨 6대가 부러지고 두부 좌측 피하혈종에 비강내출혈, 좌측 안검부종에 뇌좌상 등 온몸을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식물인간이 된 채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에 의해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려환자로 위장, 입원되어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의 철저히하고도 조직적인 은폐 아래 중환자실에서 77일간을 신음하다 5월 26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였다.

1986년 3월 10일(근로자의 날) 낮 12시경 건강한 몸으로 영등포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폭행을 당했던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를 두번씩이나 찾아갔다. 가족들은 무연고자 사건 사고 문의를 했으나 경찰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치안본부 교통종합상황실 및 각 경찰서 182번 가출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 응급실 및 영안실을 뒤지던 끝에 86년 4월 14일 사건 발생 34일만에 영등포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김상원동지를 발견했다. 병원측은 기관지를 절개하여 기도에 호스를 연결시켜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입원하게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영등포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인 홍성일 순경에 의해 옮겨

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홍순경을 찾아갔으나 3월 10일 밤 10시 25분경 중앙파출소에서 강성용 순경에게 인수받아 병원에 후송시킨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중앙파출소 근무일지를 확인해도 아무런 기록조차 남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끈질기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성과로 가족 입회아래 시경찰국 감찰계에서 4월 17일 조사를 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다.

강성용이가 피해자를 파출소에 연행해 왔을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 한방울 발견치 못했으며 상처하나 없었다. 단지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 근무일지는 언제 조작했는가? (김재룡 경위)

가족들이 34일만에 피해자를 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찾아내어 항의하고 간 다음날 86년 4월 15일 정오경 근무일지를 찢어내고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었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장 결재는 어떻게 받았는가? (김재룡 경위)

들키지 않도록 하라며 해줬다. (강성용 순경)

홍성일이가 파출소에서 강성용에게 피해자를 인수받을 때 상처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였다. 얼굴과 옷이 온통 피투성이라 시트를 적실까봐 신문지를 깔고 후송했다. (홍성일 순경)

이상과 같은 대답이 나오자 관련 경찰관들이 공문서 위조 및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축소하여 사건을 덮으려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제137차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김정길 의원에 의해 폭로 되어 재조사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체 조사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관련자 처벌도 없이 시경국장까지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시 가족들은 사건당일 과출소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을 찾아 나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중앙과출소에 있었던 3명의 목격자들을 찾았다. 그 결과 집단 구타와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6년 3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이병호 경장에 의해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던 중 마찰이 있었고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목격자들이 과출소를 나오던 밤 11시 20분까지 피해자는 멀쩡했으며 그때까지도 다툼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후 관련 경찰관들은 보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방범대기실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때렸다. 그런데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절명직전에 이르자 우연하게도 같은 시각 영등포동2가 명동장 여관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정영수를 김상원과 뒤바꿔 놓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과출소에 연행되지 않은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밝혀지자 모든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서로 은폐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뒤 가족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987년 7월 23일(사건번호 42982호)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냈다.

더우기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한 증빙서류 속에서도 경찰관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에서 경찰관들은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열어가며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 졌지만 불기소 처분한 검찰수사반 소견서에 입을 맞추며 은폐조작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반대로 사건현장을 생생히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경찰에 맞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농성, 진정, 법정투쟁으로 5년여만에 법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행 사실을 밝혀내고 민사에서도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의문의 죽음이 최초로 해결된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 이 정 순 (당시 39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1952년 3월 19일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64년 2월 순천 남국민학교 졸업  
1991년 5월 18일 연세대 정문앞 철교위에서 분신후 투신

### ◎ 동지의 삶과 죽음

이정순 동지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 남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7남매의 장녀인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동지는 버스안내양, 가발공장 공원 등으로 일하다 부평 작전동 한독산업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가정살림과 동생들 학비를 뒷바라지 해주었다. 그 후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힘들었고 계속되는 어려움속에서도 1남 3녀를 뒷바라지하며 꿋꿋이 버텨나갔다. 그러나 불행은 연이어 닥쳐왔다. 그는 최선을 다해 시댁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세상은 그런 그에게 시련만을 안겨주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식당 일을 하면서도 틈틈히 학원에 나가 한식, 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땀. 그는 평소에 공부를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는데 동지의 그런 탐구력과 생활력은 어려운 시련에서도 그를 끊임없이 공부하게 했다. 그는 평소에 노트같은데다 많은 글과 시를 썼는데 분신후 그의 방에서 그런 노트가 3권이나 나왔다고 한다. 그 뒤 이정순 동지는 성당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그는 독실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의 회생정신에 대해 깊이 감화받았던 듯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경 강경대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연세대 정문앞 철교에서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불던머리가 되어 투신하였던 것이다.

### ◎ 유고글

#### 【유서】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랑스런 아들·딸들에게 이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하나님 뜻대로 바치니 받아주소서.

광명과 사랑의 평화통일 이루어주소서.

백골단 해체, 군사독재 물러가시오.

서로 아끼며 살아갑시다.

모든 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

분쟁은 악이다."

#### 【시】

#### 내 인생의 허허 별판애

내 인생의 허허 별판애 홀로 웅크리고

있노니 낮에는 햇별이 지경도룩

죄이고 밤은 무섭도룩 길고

내 영혼 무엇과 있노란 말인가

하얀백지에 무얼 그리려고

내 나라 안위를 걱정하라

이런 생각에 잠겼나이다

내 나라가 통일하면 어느 자들도

침략에 대한 핑계를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뜻과 글을 모아 보았나이다  
통일의 길을 찾아 보았나이다  
작은 보석이 신기하듯이 내 나라  
앞서는 나라 신기한 나라  
슬기와 지혜있는 국민이 되고  
힘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나이다  
이 나라는 자유의 총령님들이  
지키고 일으켜 줄 것입니다  
순리 따라 가리라

이 나라는 어느 곳으로 가느뇨  
혼란이 올 적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리에 속하는 곳에 모이기 바라오  
이 아픔이 전신에 솟구치는 분수처럼  
내 어찌 이다지도 저려온단 말인가  
이 나라 국민이라면  
순리 따라 가리라

【추모글】

글1.  
아, 언니 당신은 영원한 불꽃이었소.  
그토록 붉은 장미를 좋아하더니 5월에  
장미가 되었군요.  
온몸과 마음을 불태워  
민중의 영원한 햇불이 되어 민주화의 영원한  
어머니가 되었소.

언니, 사랑하오. 당신이 바친 주님의 사랑과 민주화  
의 열풍은 언제나 언제까지 민주화의 봉화가 되어 영원히  
영원히 타오르리라.

아, 언니, 당신은 오월에 여왕이었소.  
청순하고 고결한 당신은 작은 여자였지만 태산보다  
큰 사랑이었소.  
모든 여성의 대변자이자, 세상의 모든 어머니였소.  
지금은 슬프지만 내일은 웃으리라.  
언니, 꿈속에서 하얀 장미화관을 쓴 언니모습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소.  
언니,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리

〈이육자 아가다 씀〉

글2.  
“제도 언론이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마땅히 국민의 편에서 공권력의 폭행만행을 규탄하  
고 근원적 재발장지에 힘써야 할 언론이 축소·왜곡보도로  
고 강경대 동지에 대한 제 2의 살인을 감행하고, 민주세력  
에 대한 무장해제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력  
에 유리한 보도는 가능한 크고 과장된 화려한 미사여구로  
나열하고 독재권력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보도는 왜곡·축  
소 보도하는 제도언론의 마술을 익히 보아왔다. 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7명의 전경이 과잉진압과정에서 죽었  
을 때 별다른 신중함없이 연일 머리기사로 학생시위에 대  
해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던 언론은 백골단의 쇠파이프 구  
타로 숨진 고 강경대 동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난한 「신  
증합」과 사태의 조기진화라는 정부측 입장에 발맞추는 듯  
한 보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케 했다. 특히 MBC 뉴스의 경  
우 강경대 동지의 쇠파이프 살인 만행후 강경대 동지의 죽  
음의 근원적 원인이 마치 잘못된 시위문화에 있는 양 사실  
을 왜곡하고, 학생도 전경도 모두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  
이 국민의 노태우 폭력정권에 대한 분노를 희석화시키고  
있다. 또한 18일 분신한 이정순 동지의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정신분열증으로 왜곡보도하였다. (18일 MBC 9시  
뉴스) 우리는 강경대 동지, 이정순 동지의 죽음을 욕되게  
하며 스스로 권력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제도언론의 편파·  
왜곡의 축소보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1

통일로 가는 나라2

오고 싶을 때 물길따라 오는 나라  
가고 싶을 때 꽃길따라 가는 나라  
부르고 싶을 때 언제 어느 때나 부르고  
손짓하는 나라  
막히지 않는 나라 벽이 없는 나라  
서로 나누는 나라 받기는 나라  
좋아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서로 모이고 자랑하는 나라  
이산 저산 산보하는 나라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맺힌 마음 풀어주는 나라  
서로 알려주고 깨달음 받는 나라  
이길에서 저길로 꽃향기 피우는 나라

이산에서 저산 끝까지 산메아리 듣는 나라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는 나라  
못가는 곳 못오는 곳 없는 나라  
끝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로  
소원 이루어 주소서

시 2

통일로 가는 나라 3

내 눈은 광명의 뜻으로  
이남에 두고  
내 가슴은 사랑의 뜻으로  
이북에 두고  
정의와 평화의 날개를 달고  
날 사랑하는 곳에  
문허리라

시 3

그리움

나는 세상에 남긴 것도 아무 것도  
없나이다  
나는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어느 것도 없나이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움이 있다면 다만  
통일이라고

시 4

내 한 몸 바쳐지리라

내 모든 것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쳐지리라  
눈과 가슴이 되어  
복음하리라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내 눈 바치나니  
밝은 세상 비추어 주소서

〈동지의 유서 원문과 노트에서 나온 글 들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 있다.〉



# 정상순 (당시 25세)

##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1966년 11월 1일 전라남도 보성 출생  
 1985년 2월 보성고등학교 졸업  
 1991년 5월 22일 오후 7시 25분경 전남대 병원 영안실 위에서  
 "노태우 물러가라"며 투신  
 1991년 5월 29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보성고 김철수 동지의 고교 선배인 정상순 동지는 노동자로서 여러 직종에 종사하였다. 91년 계속되는 분신에 괴로워하던중 고교 후배인 김철수 동지가 분신하여 전남대 병원에서 투병을 하자 병원을 찾아와 두 번씩 울고 갔다. 5월 22일 전남대 병원 영안실 위에서 "노동자여 투쟁하라. 시민들이여 함께 호흡하고 함께 외치고 투쟁하자"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후 투신하여 5월 29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전사를 위하여 자신을 태우렵니다. 왜 젊은 학도들이 가야 합니까. 우리 젊은 기성세대는...

부끄럽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승희양과 철수 열사들의 뒤를 이어 젊음을 태우렵니다. 현시점에서는 열사 보다는 전사가 필요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가슴 가슴에 와 닿은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젊음이라는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시민이여!

대동단결하여 오직 승리,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젊은 열사 여러분의 가슴 가슴에 외치고 싶습니다.

### ◎ 유고글

【유서】

.....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푸른 5월 하늘에 부끄럽없는 자기 자신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는 다같이 전사가 되는 길 뿐이라고... 내 자신은 아직도 망월동 영령들의 참배를 하지 못했다. 걸치레보다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실천하여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이여!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 공안통치 속에서 꺾박받으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 젊음 태워서 모든 사람에게 가슴속에 와 닿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형님, 누나, 전인, 영희, 행복하기를...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면 합니다.

제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도로에다 뿌려주십시오. 전사들이 제 육신을 발로 밟아 가면서 투쟁하고 저도 항상 투쟁하며, 죽어서까지도 승리하렵니다. 시민들이 제 육신을 발로 밟으며 가슴 가슴에 뜨거운 5월에 하늘을 불사를 겁니다. 뭉치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진실한 사람으로 안녕. 가진자들의 땅도 없어야 함께 더불어 사람세상... 노동자여 투쟁하라

이 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돈, 명예,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다정다감한 한 시대의 동반자.

.. 시민들이여 함께 호흡하고 함께 외치고 함께 투쟁하라! 그리하여 승리하자... 슬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

나... 한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휘날려 5월의 영령 그 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 활활 타오르는 햇불이 되고 싶어라.

... 민자당 각성해야 한다. 하늘도 무심무심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젊은 열사, 전사에

게...은총을... 철수야 철수야 이 못난 선배 용서해다오, 철수야 철수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월 영령들의 외침의 숨소리...



.....

.....

## 최종길 (당시 41세)

###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1932년	충남 공주 출생
1955년 3월	서울대 법대 졸업
1955년 5월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
1958년	서독 쾰른대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
1962년	서울대 법대 교수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출두
1973년 10월 19일	조사받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함

#### ◎ 사건경위 및 의문점

중앙정보부(前 국가안전기획부)는 73년 10월 25일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는 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동지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해명은 최동지가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정권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간첩단 조작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최동지가 출두하기 이전 동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다녀온 것으로 사건 조서가 꾸며져 있었고, 투신했다는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부검을 완강히 거부한 속에서 유가족을 협박해 장례를 급히 치루게 만든 점은 고문에 의한 타살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1988년 10월 19일 최종길 서울법대교수의 죽음 15주기를 맞아 평화신문에 실린 '15년 갇힌 죽음, 이제 풀어야 한다'를 축약한 것이다.

1973년 10월 16일 오후 2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이던 간첩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동베를린에 갔다는 것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용변 중 7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1973. 10. 19. 오전 1시 30분 자살하였다고 유가족을 기만하고 강압하여 서둘러 비밀리에 장례를

치르게 했다. 장례가 끝난 뒤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고 다르게 발표했다.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 요구가 교수, 사제단, 재야 인권운동 부문에서 높아져 갔으나 중앙정보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망한 일이었고, 88년 '서울의 봄'이 잠시 왔을 때 서울법대학생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준비되었으나 5.17로 또다시 무산되었다.

박정희정권이 쿠데타를 집권한 이래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 당당한 권력기관이 되어 외국에 까지 악명높은 비밀경찰조직으로 널리 알려졌다. 1972년 10월 유신정변이후 학원에서 유신반대투쟁이 서서히 조직되기 시작했고, 1973년 8월 8일에는 김대중 前 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의 이목이 박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집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으로서의 국내외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었고, 학원의 반유신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다.

그 때 수사하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과 그 사건에 최종길 교수의 의도적으로 접합시킨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이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견해이며, 또 대부분의 관심있는 내.외국민의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가기 며칠 전 교수회의 석상

에서 학생들의 처벌에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중앙정보부에 항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족이 확인하여 기록한 양심선언에 의하면, 간첩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최 교수가 연행되던 10. 16일 이전에 완전 종결되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신 자살 운운하며 최교수에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가 허구요 거짓임을 입증하는 사실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간단히 살펴보자.

1) 최교수가 죽고난 뒤 중앙정보부측이 가족에게 말한 바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고 했다가 '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로 둔갑했는가 하면, 공식발표문에는 '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 등으로 황설수설 반복하고 있다.

2) 가족에게 투신자살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10. 19일 당시 중앙정보부 검찰실에 근무중이던 최종길 교수의 친동생 최종선씨가 비밀리에 극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유혈이나 유혈을 씻어낸 물자국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3) 사체부검에 최 교수측의 변호인과 의료진의 입회를 중앙정보부가 완강히 거부했다.

4) 새벽 1시 30분이라면 중앙정보부의 모든 창문은 안으로 잠겨져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창문을 열고 번기 앞부리-->번기꼭대기-->창턱을 거쳐 뛰어내리기까지는 어느 한 가지 동작에서도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초가 걸리게 된다. 그러나 최 교수는 잠그는 장치에 익숙치도 않았을 것이고, 작고 뚱뚱한 몸집이며 더구나 조사 과정이므로 허리띠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수사관에 6m 거리를 두고 투신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5) 가족들에 의하면 10. 19. 최 교수가 사망 직후 장송록 수사단장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처음 이틀 동안은 범행을 완전 부인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18일)부터는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아늑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투신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 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하실에서 고문, 물을 먹인 사실을 간접적

으로나마 얼떨결에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6) 또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죽은 뒤 가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으나 가족들은 그것이 허위조작을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강력히 거절, 저항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장례식이 끝나자 태도를 돌변하고 10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최 교수에 대한 죄상을 근거나 증거도 없이 늘어놓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후 깊은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70년대 초반 가혹한 노동조건에 분신으로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유신독재 권력의 고문에 의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70년대의 수탈과 전체적 억압을 상징하고, 또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15년이 넘도록 올바른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유신독재의 연장선속에서 5공, 6공이 그대로 한국 현대사회의 암흑을 이루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정권의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최종길 교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의 진상을 완전히 벗겨 독재권력의 본질을 국민앞에 폭로하는 것만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 ◎ 동지를 생각하며

당신의 자살은 날조된 것입니다. 지금 미망인이 된 당신의 부인께서도 스스로가 의사이면서도 시체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신을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기계의 조작법을 몰라 그렇게 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들 용기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을 두고도 중앙정보부가 두려워 쉬쉬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을 추도미사를 올리게 되었을 부끄러워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다같이 모여 통곡으로 추모하오니 원컨대 최교수님께서 우리의 뜻을 굽어살피사 우리에게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옵시며,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 1918년 8월 27일 평북 의주 출생
- 1932년 평양 숭실학교 입학
- 1940년 4월 일본 동경 일본 신학교에 입학
- 1944년 1월 학도병으로 중국에 끌려가다 7월 일본군에서 탈출, 중국군에 가담
- 1945년 1월 중국 중경에서 광복군에 편입, 광복군 대위에 임관됨
- 194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인으로 입국
- 1947년 12월 조선 민족 청년단에 참가
- 1964년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에 참가, 언론윤리법반대투쟁에 나섬
- 1965년 조국수호협의회에 참가, 한일조약 반대투쟁에 가담
- 1967년 6월 옥중 출마로 동대문 을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박정권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함

◎ 동지의 삶과 죽음

오랜 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재야 대통령이라는 칭송까지 들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장준하 동지는 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구축해 갈 때 가장 선두에서 서서 민주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74년 1월에는 민주회복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74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그후 지속적인 유신헌법 철폐를 목적으로 한 개헌운동의 노선단일화를 위해 민주통일당을 탈당하였다. 75년 8월 17일 장준하 동지가 약사봉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박정희 정권은 등산을 하다가 실족, 익사한 것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다. 이는 재야 지도자에 대한 박정권의 암살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민족적 양심에 살려서 사람 앞에 갈라진 민족, 둘로 나누어진 자기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상의 명제는 없다. 이를 위한 안팎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이상의 절실한 과제는 없다. 어떤 논리도 이해도 이 앞에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대원칙 아래서 굳어진 논리, 고집스러운 자

세를 고쳐가야 한다. 근본과 말단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앞선 당위이며, 가처며, 무엇이 거기에 따른 것인가를 감려야 한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은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물론 민족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씨알의 소리' 1972년 9월호 '민족주의자의 길' 수록)라는 선생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생의 위대한 일생을 보람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매일매일 민족적으로 자각하며 산 선생의 인간적 성실성이 아닌가 한다. 또 75년 7월경 그러니까 선생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쯤, 중랑천 어느 가난한 집안을 살피다가 한 집안 다섯식구가 월수 1만2천원 즉 쌀 반 가마니값의 수입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여보게, 자네 통일이 소원이려며? 통일이란 저 사람들의 생활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이 통일일세."라고 하셨다.

◎ 유고글

[동지의 글 1]

민족주의자의 길

1. 민족주의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한 인간이 민족적 양심에 따라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 고달픔과 보람을 민족의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리라.

민족적인 삶이 험벗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있을 때 민족적인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눈물과 노력은 모두 이런 민족적인 간난을 극복하려는 데 바쳐진다.

하물며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존재조차 없어지려 할 어두운 시절에는, 민족이 외세의 침략에 눌리어 그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려는 암울한 시절에는, 민족주의자는 자기의 생명조차 민족적인 삶을 되찾는 싸움 속에서 불태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의 생명, 민족의 존재가 이미 없어져 버릴 때는 민족의 한 사람인 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명과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생명과 존재와는 따로 있는 자기, 민족의 생명이 끊어진 뒤에도 살아 있는 자기, 민족이 눌리고 험벗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 자기이며, 그렇기에 자기의 생명을 실현하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의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참으로 인간적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살아가는 길의 갈림점이었다.

애국자의 길과 매국노의 길, 민족적 사랑의 길과 배신의 길이 갈리는 길목인 것이다.

그렇기에 비민족, 반민족적인 길에 빠져 버리거나 스스로 택하는 자의 모든 '개인적인' '인간적인' 번뇌는 아무리 그것이 절실하고 불가피하고 자기대로 푸념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미 진실로 '인간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 또 그의 본질은 자기를 성장시켜 가고 실현해 가는 것이지 노예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은 것이다. 저 길바닥에 던져진 한 개의 돌맹이조차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돌임을 지켜갈 때 그는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거니와 설사 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때는 하나의 돌은 아닌 것이다.

하물며 노예의 부귀와 영화와, 참으로 인간적인 영

광과는 정반대의 길이며, 오히려 노예 가운데서도 이를 벗어나려는 싸움이야말로 고귀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족적인 삶의 길이 험난했던 민족의 경우에는 살아가는 일조차 이렇게 험난했다. 말 그대로, 말은 쉽지만 행동은 힘들었고 그랬기에 구슬처럼 맑게 살아간 젊은 시인 조차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써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운동주)라고 옥중에서 조차 절규하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의 지난 날, 더욱 가까이 최근에는 정말 험난의 연속이었다.

세계의 시궁창이 이리로 흘러들어왔고, 세계의 모순, 세계사의 범죄가 이땅을 무대로 일어났다. 산높고 물맑은 강토에 살던 착한 우리 백성들은 흉수처럼, 악마의 불길처럼 밀려드는 이 세계사의 시궁창 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사의 악 중의 악인 제국주의가, 악마 중의 악마인 군국주의가 그 가장 표독한 이빨을 우리민족에 들이댔던 것이다.

누르고 뺏고 마침내 말도 빼앗고 성조차 갈려고 했다. 까닭없는 싸움터로 내몰아 앞세워 죽이고 마지막 땀방울까지 빼앗아 갔고 인류의 족보위에 한 민족의 존재조차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하건만 표독한 이빨 앞에서든 끈질긴 항쟁이 있었다. 비록 총칼 든 전투, 이름난 의사, 열사가 아니더라도 들판에서 공장에서 낫선 이국땅에서 끊임없이 싸웠다. 이 싸우는 민중에게는 바로 민족적인 삶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었고 국토를 빼앗기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광복은 생활의 터전과 자기의 인간적인 삶을 되찾는 길이었다.

이와는 달리 애국이 자기의 삶과 일치하지 않고 지식과 논리가 삶의 터전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던 일부 지식인 지도층에서는 민족에 대한 배반도 일어났다.

하지만 항쟁의 길이 고달프고 외로운 듯했지만 그 길은 온 민중과 함께 있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 승리의 영광은 더욱 보람찬 것이었다.

2. 장구한 싸움 끝에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이 왔다.

빼앗던 자가 망하고 억누르던 자가 쫓겨가고 포악한 침략전쟁이 채망하여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찾은 이 해방

의 순간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민족 해방의 환희; 그렇게도 그리던 기쁨, 이 기쁨을 기다리며 참고 견딘 어두운 고통, 이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그리던 희망, 이 기쁨과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설렘, 이 벅찬 설렘을 무엇에다 비길 수 있으랴.

이 벅찬 설렘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알차게 영글어 갔다면 이에 비길 행복이 어디 있으랴만 세계사의 흐름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 주지 않았다. 압제자 일본 군국주의를 무장해제하기 위해 남북한에 나누어 진주한 외국군은 군사적 진주와 점령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 진주와 점령으로 굳혀 갔다. 세계사의 새로운 모순, 동서 냉전체제는 새로운 범죄가 우리의 강토, 우리 민족의 생명 위에서 새로운 운명을 장난질했다.

게다가 세계사의 이와 같은 새로운 모순이 이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를 권력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 일부 신생 권력층은 안에서, 밖에서 강요한 양분체제에 대응하였다.

통분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민족은 양분되었고, 통일을 갈망한 민중의 염원은 현실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내외가 상응한 분단체제에 묶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통한 냉전체제에 의한 민족의 분단은 기억하기도 참혹한 열전으로까지 터지고 말았다. 세계의 갈등이 그 가장 참혹한 열전으로까지 터지고 말았다.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그토록 불구대천의 원수로 갈라진 무슨 주의가 있었고, 그 주의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두 동강 내어 살기를 원했던가? 그뿐인가. 역사의 뚝인 전쟁, 그 가장 더러운 동족상잔을 우리가 청부맡아 했더니 오천년 민족사 앞에 아니 인류의 역사 앞에 무슨 낫을 들 수 있으랴.

회상하기도 끔찍하고 몸서리치게 싫지만 다시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 앞서 평화를 확보한 자보다 이긴 승자는 없다. 하물며 동족과 형제끼리의 싸움에 평화보다 더 영광스러운 승리는 없다.

어떻든 우리 민족은 금세기 가장 더러운 세계사의 범죄를 청부받았다.

전후 냉전체제에 의한 남북 분단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자기부정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는 이 분단에 내응한 국내세력의 움직임이 어떠한 그 기본적 계기는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분단된 민족은 역사의 실천 단위로서는 적어도 하나의 주체적 자기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로 나누어진 그 한쪽은 어느 쪽도 하나의 주체적 단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강변은 분단의 합리화를 위한 거짓 명분일 뿐이다.

어떻든 이 분단체제 그 세계적 주범인 양극 냉전체제도 긴장완화니 해방이니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공의 대결과 대립의 완화, 소련과 중공의 동맹과 대립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변 정세를 바꾸어 놓았다.

적어도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총칼을 앞세운 대결은 의미를 잃었고 오히려 대국의 공존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보이게끔 되었다.

이와 같은 양분 무력대결의 근본 조건이 바뀌어져가는 상황 아래 우리 민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세에 의한 자기 분열을 강요했던 자기부정의 조건이 스스로 변화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부정을 고집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위의 글은 72년 9월 「씨알의 소리」 호에 장준하 선생이 쓰신 '민족주의자의길'의 일부이다.>

【동지의 글 2】

통일로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그렇지만 그 길은 기필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한 사람, 몇 사람의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희생되어서라도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이 희생과 설사 있을 지 모르는 지는 것이야말로 보다 영광스러운 이 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민족통일의 혈로를 뚫기 위해 몸을 던질 때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길을 이제야 우리는 다시 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도 다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길이 민족적 양심에 살려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씨알의 소리」 1972년 9월호 中>

【동지의 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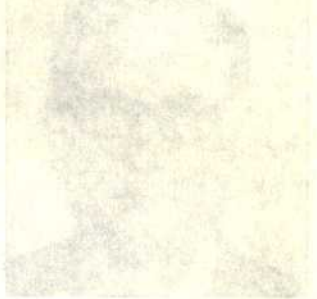
그럼 그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사회정의란 도덕법

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참평등 그것을 요구하는 이념인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인 사회적 불평등 또는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는 슬로건으로서의 현대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정치적인 정의 혹은 생존권과도 같은 개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이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의미에서 뿐이 아니고 그 인격적인 본질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중시되는 것이다.





## 임기윤 (당시 58세)



- 1922년 12월 27일 평남 용강군 오신면 석정리에서 부친 임찬하씨의 4남으로  
출생
- 1951년 중앙신학교 신학과 졸업
- 1961년 중앙신학교 사회사업과 졸업
- 196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 안수
- 1971~ 72년 부산기독교 연합회 총무
- 1971년 7월 2일 부산 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 1979 - 80년 부산신학교 운영이사장
- 1979 - 8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부산지방 감리사
-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속칭 삼일공사)에 연행됨
- 1980년 7월 21일 부산 통합병원으로 옮김
- 1980년 7월 26일 운명

### ◎ 사건경위

임기윤 목사는 암울한 유신체하인 1975년 2월 16일 침례교와 성결교까지 포함하여 범교단적으로 40 - 50명의 목회자가 조직한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교인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함석헌 선생, 서남동 목사, 문동환 목사 등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임기윤 목사의 친지인 김광일 변호사는 80년 5.17 직후 김대중 사건 및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차로 많은 인사를 연행, 조사, 구속하였으나 그후 정부는 요시찰 인물로 적혀있던 인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 겸 반체제 운동 말살을 위한 일종의 정신교육, 순화교육 차원에서 민주인사들을 연행하였는데, 이때 임기윤 목사도 연행되었다.

또한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항쟁에 대한 설교를 하자, 바로 며칠 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송된 적이 있고, 설교내용으로 담당 형사가 찾아와 전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임기윤 목사는 "나는 정치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임 목사의 연행은 이러한 설교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재조치였으리라고 판단되어진다.

## 墓 記 確 認

임기윤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 사령부 부산분실 참고인으로 불려간 뒤 3일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6일 순교하였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목사님에게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보안사 측에서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80-150으로 체구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혈압으로 인한 이상도 없었다. 게다가 임기윤 목사의 부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센치 가량 찢어져 있고 그 곳에 피가 흘러 말라 붙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통칭 삼일공사라 불리우는 보안사에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그 곳 지하실에서 20대 청년들에 의해 폭행이 흔히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임기윤 목사는 보안사 내에서의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운명하였거나 설혹 육체적 고통은 당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포분위기에서의 정신적 고문으로 운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지들도 고문, 폭행 여부는 당시의 보안대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자연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 동지를 생각하며

【드리는 글】

고 임기윤 목사님께서 순교하신지도 어언 10년으로 10년, 만 8년이 되갑니다. 광주의거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빛어진 갑작스런 일들을 다시 회고해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고도 원통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잊혀져 가려는 그날들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사 부산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통지서류를 받은 목사님께서서는 1980년 7월 19일(토) 아침 6시경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을 초대할 계획도 있고해서 꼭 돌아오실 줄 믿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주일) 후보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설마 하니 주일아침에는 일찍 돌아오실 줄만 믿었던 목사님께서서는 오전 10시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10시 조금 지나서야 그리던 목사님의 힘없으신 목소리가 전화통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언제오시는 것입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보내 줄것 같다 하시며 서둘러 목사님 한 분을 단에 세우라 하시면서 잘 있으니 여기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으신 그 목소리가 살아 생전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월요일) 12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이 되자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모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가 임기윤 목사님댁 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냐 물으니 정식(장남, 한번 들어갔던 곳)이와 함께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정식이와 차를 잡아 타고 달려간 곳이 국군보안사 부산분실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선 저는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직원 한명이 말하기를 본래 목사님께서 혈압이 높으셨나고 질문을 하기에 혈압은 정상이라 말하고 당신들은 목사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계신 곳을 어서 빨리 안내

하라고 독촉하여 옆 건물인 통합병원으로 인도 받았습니다. 병원문을 들어서니 수술방 유리문을 통해 목사님의 누워계신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순환기절제 수술을 하고, 산소호흡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반경 부산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으시다가 5일만인 26일 오후 10시 43분 운명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임종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상을 밝혀내려 애쓰시는 교단의 목회자님과 여러 신도님께 감사드립니다.

故 임기윤 목사님의 처 최광명 올림

### ◎ 추모글

【성명서】

고 임기윤 목사님의 뜻을 되살리기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인의 순교이후 7년이 지나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깊은 부끄러움을 느껴면서, 이제부터라도 고인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뜻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돌릴 수 없다. 그는 전국민의 민주화열기와 광주민중의 항쟁을 피로 짓밟은 제5공화국 정부의 탄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민주인사에 대한 현정권의 전반적인 협박, 회유 공작의 일환으로 보안사에 연행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인이 권력의 탄압과 주변의 이해부족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의롭게 섰던 싸움을 하여온 그 뜻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우리속에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신 님의 육체는 썩어 문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에 받아들여셨고, 그의 뜻은 우리들 가슴속에 되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한다. 살아남은 우리 모두는 그의 뜻을 좇아 민주화를 향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

(7주기를 맞이하는 성명서 中)



- 1936년 11월 13일 장성군 출생
- 1951년 삼계고등공민학교에서 수학
- 1968년 장성군 3선개헌 반대투쟁위 위원
- 1972년 민주회복 국민회의 위원
-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 장례위원장 이후 수배 (6월 부산에서 피검)
- 1982년 3월 24일 소위 햇볕회 사건으로 구속, 잔혹한 고문으로 극도의 건강 악화상태에 빠짐
- 1982년 5월 31일 부인과 2남1녀를 남기고 오후 7시에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당시 기종도 동지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장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군사정권의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혀진 이름없이 죽어간 영령들을 관여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광주민중항쟁 가담자로 수배받게 되었다. 80년 5월 부산에서 검거되어 부산교도소, 청주교도소 등지에서 2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81년 8월 15일에 출감하게 된다. 그 후 동지는 집안에서 요양하다가 햇볕회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동지는 투병 끝에 5월 31일 못 다 이룬 민주화를 가슴에 품은 채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유서】

내 아들 봉관아 아빠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  
.....

아빠는 지난 80년 광주사태 당시 이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군들이 총칼로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 학살할 때 집에서만 이 불행한 사태를 방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집을 나와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그리고 거리거리에서 쓰러진 시민 학생들의 시체를 한사람 한사람 걷어다가 얼마 후 내가 누어있게 될 이 전대병원과 도청 영안실을 드나들며 염을 하고, 아직 생

성경에 "의인을 심판하는 날이 말세"라 했다. 이 나라도 말세인가 보다. 어찌 어린 너에게 말로 다하겠는가?  
.....

이러한 사실이 이제 나를 이세상을 영원히 볼수 없느 저 세상 문턱에 밀어 넣어 아빠가 아빠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니 너를 볼 면목이 없다마는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니 다음 몇가지 사실은 꼭 유념해서 너라도 애비의 한을 풀어다오. 아빠가 죽은 것은 내 운명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 경찰국 수사과 이재방 외 5-6명의 살

인적인 고문과 교도당국의 무관심 때문이다. 아빠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에 자유민주주의 신봉가로서 지금까지 이나라가 민주회복이 되어 너희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한평생의 꿈이었으니 너라도 커서 아빠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아빠 대신 많은 일을 해준다면 아빠는 지하에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부디 아빠 없더라도 외로워 말고 부디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자라라.

.....



- 1901년 3월 13일 평북 용천군 출생
- 1916년 양시 공립 보통학교 졸업 및 관립 평양고등보통학교 입학
-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신 후 학업 중단
- 1938년 3월 창씨개명과 일본어 수업을 거부하시고 오산학교를 사임 당하심. 이후 2년간 오산에서 과수원을 돌보시며 학생을 상대로 전도하심
- 1940년 8월 동경에서 계우회사건으로 평양 대동경찰서에 1년간 복역
-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고향에서 용암포 자치위원장, 용산군 자치위원장이 되심
- 1956년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사택을 마련, 이때부터 「사상계」 집필 시작
- 1961년 6월 5·16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5·16어떻게 볼까?」를 발표
- 1970년 4월 19일 잡지 「씨울의 소리」 창간호 내심
- 1971년 7월 전세기념관에서 노자강의 시작, 1988년 5월까지 계속하심
- 1971년 8월 삼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는 한편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조직하여 대표위원으로 1975년까지 활동
- 1971년 11월 13일 전태일 1주기 추도회 및 강연회를 시작으로 씨울의 소리사 주체로 1975년까지 해마다 계속하심
- 1974년 11월 윤보선·김대중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만드시고 대표위원이 되심
- 1979년 11월 23일 명동 YWCA사건으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15일간 구속
- 1985년 케이크세계협회 멕시코 종교대회에 참석. 두 번째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 1989년 2월 4일 운명

◎ 유고글

죽을 때까지 이 결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거다.

잘살아도 이 한 삶에 살아야 하고 못살아도 이 한 삶에 살아야 한다. 그 잘잘못이란 말을 행, 불행의 뜻으로 잡거나, 시, 비의 뜻으로 잡거나, 정, 사의 뜻으로 잡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잘잘못이 대체로 결정되는 것은 나라에 달렸다. 나라 잘 타고 나면 잘되고 잘못 타고 나면 잘못된다. 자리가 따스할 만큼 앉았을 겨울도 없이 천하를 두루 다니던 공자의 일생은 춘추시대의 주나라로 결정이 되었고, 맨발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짧은이를 가르쳐 주에 다른 생각이 없다가 독약을 먹히우고 태연히 눈을 감던 소크라테스의 운명은 아테네의 나라 형편으로 결정이 되었고 목자 잃은 양같이 해매는 무리들에게 아픈 것을 고쳐주며 주린 것을 먹여주며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주다가 십

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생애는 그때 나라 망한 유대 민족으로 결정되었다.

루이 16세가 그때 프랑스에 나지 않았더라면 모가지를 잘리우지 않았을 것이요 스탈린이 러시아에 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험악한 정치가 노릇은 아니했을 것이다.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만일 우리나라에 갔다면 벌써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김구도 만일 미국에 갔다면 훌륭한 정치가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으로는 세계 첫 자리에 올라 이 우주에 아인슈타인 우주관 이름까지 붙게 됐지만 죽을 때는 아마도 조국에 대한 한 줄기 슬픔이 가슴에 가로 비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요, 파스테르나크가 「의사 지바고」를 써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철의 장막 속에 살지 않았다면 있지 못할 일이다.

개인의 자유와 힘쓰미 없단 말 아니다. 나라를 세우고 목숨이 개인에 달리지 않았단 말 아니다. 그러나 구멍을 막으려면 돌은 부스러져야 하는 것이요, 집을 세우려면 아름드리 나무는 적혀야 하는 것 아닌가? 네 맘을 쓰고 아니 쓰는 것은 네 자유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나라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시대의 소리와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가 무엇이요, 시대가 무엇이나? 자연과 사람, 물질과 정신, '나들'과 '너들'의 하나로 되어 살아 있는 생명체 아니네? 옛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사회라 하고 심리라 하고, 생리라 하고 물리라 하며; 실존이라 하고 현존이라 한다. 그러나 겸손하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요, 나라다. 절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시간으로 공간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나라다. 나라는 '나'요, '나라!'하는 자요, '남는'자다. 잘 받으면 천명이요, 잘못하면 인위 곧 위, 곧 거짓이요, 그 잘못된 것을 고치면 혁명이다. 명을 새롭게 함이다. 참 자리에선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다.

우리처럼 '나라' 소리 많이 듣고 자라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특색을 나라 소리 많은 것이다. '엄마' '아빠'를 배울 때부터 이날까지, 낮에도 '우리나라' 밤에도 '우리나라', 서울 가도 '나라' 산골 가도 '나라', 직업에도 '나라' 학문에도 '나라' 이것이 어떻게 된 나라일까?

장자는 말하기를 신이 꼭 맞으면 발을 잊고, 떠가 꼭 맞으면 허리를 잊고, 맘이 잘 맞으면 시비를 잊는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미루어 한다면 정치가 바로 되면 나라를

잊을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밤낮 나라 나라, 정부 정부, 임금 임금, 누에 든 모래알처럼 목에 걸린 가시처럼 못 삭인 빨처럼 잊지 못하고 부르는 것은 거기 무슨 크게 잘못된 것이 있는 나라 아닌가?

옛날 요 임금은 어찌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이 임금 있는 줄 알지도 못했다 하며, 지금도 스위스 같은 나라에선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입학 시험에 어린애들이 무슨 장관의 이름까지 외어야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젓을 먹일 때부터 백발이 되는 오늘까지 독립 소리 들은 건 얼마고 한 거는 얼마일까? 독립문, 독립협회, 독립운동은 독립당, 독립군, 독립만세, 독립독립, 그렇게 독립을 부르짖는 민족이 독립은 왜 못하고 이 모양일까? 석양에 망우리 나가보면 무연한 풀 속에 우뚝우뚝 홀로 서 있는 무덤 하나 남기려다가 나라 잃은 사람들 아닌가? 금산의 칠백의사처럼 싸우다 싸우다 한 무덤에 얼크러져 네 뼈, 내 살을 고를 수 없이 뒀더라면 나라는 정말 독립을 했지.

지금도 서울 장안에 쭈뼌 아닌 화초밭 속에, 다투어 가며 파르파로를 자랑하는 돌 벽돌의 산 무덤들, 그 속에 산송장이 살이 썩는 것 아니라 썩고 있는 동안에 나라의 풀들은 일어설 기운이 없이 이리 건물 저리 건물하더라.

이런 나라엔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는 나라를 제 맘대로 골라 나라면 이 나라에 나겠다 할 사람 몇이나 될까?

하지만 명에는 돌은 없다. 사실은 잘잘못도 없다. 잘잘못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잘못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저 함이, 삶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잘잘못을 가리는 생각으로 하더라도, 이 나라는 한 번 살아볼 만한 나라 아닐까? 인생이 무슨 뜻이 있는 것 아니고 한바탕 구경을 하고 가는 것이라 치고라도 이 구경은 큰 구경이다. 억만 년의 역사라 하지만 이런 구경은 흔한 것은 아니다. 나라가 한 번 망하고 나라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일, 이것은 장관중의 장관 아닐까?

나라가 망하려 해도 쉽게 되는 것 아니요, 흥하려 해도 쉽게 되는 것 아니다. 맘이 둔한 자는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만나도 먹먹히 지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끔찍한 환난을 겪어도 거기서 위대한 시와 철학과 교훈을 뽑아낸다. 산골짜기의 냇물이 한 번 땅속에 스며들었다 저만큼 가 뚫고 나와도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게 되는데, 5천

년 역사가 땅속에 들어갔다 36년 후에 다시 뚫고 나오는 데 어떻게 놀라움이 볼 수 있을까? 하물며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요, 바로 그 연극 중의 극적인 장면을 놀아내는 배우 그 자신임에서야!

이완용, 송병준을 밟다 말고 김옥균, 서재필을 아깝다 말라. 일본을 악독하달 것도 없고 소련을 흉악하다 할 것도 없으며 6·25를 끔찍하다 할 것 아니요, 2·4파동을 더럽다 할 것도 아니니라. 워낙 큰 연극을 함에 힘이 들 수 밖에 없느니라!

장담은 못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걸이는 놓지 않으려다. 3·1운동이 몰아쳐 내세원준 이 걸음 늦추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뚱뚱해 앉았을는지 모르고 세력 있는 자는 자가용 자동차 안에서 바크샤처럼 드러누워 걷는 지 몰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걸으려다. 장안 길거리를 두리번거려도 내가 주워 가지라고 떨어진 것 없이 걷고 싶다. 영원히 영원히 빠르나 급하지는 않게, 두박 두박 걸으나 느리지는 않게, 길이 길이 걸었으면!(1959)

## 최 성 목 (당시 62세)

## 墓 地 확 인

1930년 11월 11일 경북 영일군 출생

1951년 포함 중고교 1회 졸업(6년제)  
서울대학교 물리대 수학과 3년 수료  
한국 신학 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졸업

1976년 1월 1일 중부교회 전도사취임  
S.C.M(K.S.C.F 전신) 총무 역임  
V.S.I.S 부산 학생과장 역임(미공보원)

부산 Y.M.C.A 총무취임  
부산N.C.C. 회장(유신반대투쟁, 10월 부마항쟁 주도)

국민연합공동 의장(5.17수배 및 고난 겪음, 6월항쟁 주도)  
한울장애인자활센터 창립(1985.6.20)  
한울장애인어린이집 개원(1990.7.2)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장애자 임원회 위원장

야권통합(부산대표주도)

구 신민당 최고위원 역임

1992년 3월 21일 지병으로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선지자의 철저한 고독속에 살다간 부산민주화운동의 산증인

故 崔聖默 목사

부산 민주화의 성지 중부교회의 성주 최성목목사가 향년 61세로 지난 3월 22일 새벽 1시 지병으로 우리곁에서 영원히 떠나갔다.

부산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기도 하며 야당 통합의 주역으로 활동한 그의 삶은 선구자가 겪어야 하는 철저한 고독과 자신과의 싸움으로 일관해 나가는 바로 그 과정의 연속이었다.

- 부산민주화운동의 산증인, 독실한 크리스찬

그는 경북 영일군 흥해면에서 1930년 11월 11일 태어났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일제말기 학병으로 끌려갈 위기에서 산으로 도피, 일제의 만행에 대응할 정도로 그때부터 특유의 저항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6.25동란이 터지자 포함하고 호국단 단장이었던 그는 학도병으로 민족분단의 뼈저린 비극에맞서 자신의 몸을 던져생존의 장막과 맞서 싸웠다.

그때 그는 인민군에 끌려가 갓은 고문을 당한 연후 흥해면 남송동 뒷한계곡에서 무참하게 총살을 당하였다.

그러나 사형당한 33인중 유일하게 영구리관동의 총상을 입고 살아난 그는 그 순간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항상 덩으로 사는 인행이라 스스로에게 자위하며 전쟁으로 받은 상처는 누구에게 당한 강한 적대감으로 표현하기보다 우리민족의 뼈아픈 분단의 흔적이라 지적하고 자신이 조국을 위해 할 수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학시절 서울에서 KSCF(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의 총무를 맡게됨에 따라 서서히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69년 부산 YMCA총무로 피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강한 보수성을 띤 YMCA 이사회에서 그의 진보적 발언을

문제삼아 극히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임명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임시로 부산 미문화원 청년담당 간사직을 임시로 맡게 되었다. 1972년 송기인 신부앞으로 부두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요청함에 따라 송빈부는 당시 전보적이고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그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비교적 시간이 넉넉했던 그가 쾌히 응낙함에 따라 사회계층과의 본격적인 만남의 교류를 갖게 되었다. 또 민주화 운동의 동반자인 송기인신부와는 첫만남이기도 했다. 1974년초 천신만고 끝에 YMCA 총무로 취임하게 된 그는 유신정부의 삼엄한 경제속에서도 정의구현기독자회를 YMCA에서 개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Y이사측은 고의적으로 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압력과 갖은 횡포로 그를 괴롭혔다. 부당한 횡포의 폭압속에서 그는 더 확고한 위치에서 사회운동을 펼쳐기로 결심을 했다. 그 당시 사회저변에서는 사회운동단체가 전무한 상태였고 독재에 대항하는 싸움의 교두보가 있어야함을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던 터라 1975년말 YMCA에 사표를 던지고 중부교회 전도사로 들어가 이듬해 16세의 나이로 목사가 되었다.

중부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본격적인 민주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 1970년대 부산에서 만들어진 공개단체치고 중부교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단체가 없을 정도로 중부교회는 부산저항운동인력의 공급처였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지하 유인물 등 갖가지 인권운동 관계 정보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 중부교회발판 체계적 사회운동 전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한 정치집회도 중부교회에서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가능했다.

〈인천소식〉등의 유인물을 통해 은폐된 일을 대중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못자리의 역할을 해내, 그로써는 운동을 좀 더 폭넓게 인식하고 실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부교회의 첫번째 탄압이 1976 1월 초순 대학생회에서 만든〈해방골목〉창간호에 실렸던 인사말이 〈긴급조치〉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부산 YMCA 총무시절 그와 인연을 맺게 된 김광일 변호사의 무료변론으로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

1971년 신·구교연합의 부산교회인권선교협의회를 창립하고 1977년 엠베스티 부산지부를 창설하고 그해 4월에는 부산 도시산업선교회를 조직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운동을 펼쳐나갔다.

중부교회의 사회운동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부산 시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당국에선 학생들에게 부산 YMCA와 중부교회에 출입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운동성 모임이나 예배가 있을 때는 학교직원들이 입구에 지켜서 자기학교 학생들을 잡아갔다. 이 학생들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야 했다. 정보형사들까지 입구에 지키며 학생들의 신분증을 검사, 집으로 돌려보냈다. 1979년부터 부산에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민주화를 주제로한 강연이 개최되었고 강연장소로는 주로 중부교회와 YMCA강당이 많이 쓰였다. 강연회가 거듭됨에 따라 참석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유신정부당국의 탄압은 더욱더 심해졌다. 그는 이 불안한 성지의 성주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종 책임을 혼자서 짊어짐으로써 그의날개 밑에 젊은이들을 감싸고 돌았다. 그는 부산지역 특수선교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산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손잡고 도시 산업선교의 바람을 부산 노동계에 불어넣기 시작했다.

#### - 장애자학교설립 꿈 못이루고 타계

유신정부의 탄압이 극에 이른 1979년 10월 21일 그는 정부에 연행되어갔다. 서울 정보부에서 왔다는 형사가 한명 들어와서는 그의 면전에서 008가방을 열고는 차트를 꺼내 김일성을 최고 위에서 그려놓고 엠베스티, KNCC 등 단체를 그 밑에 그리고는 부산 최목사가 지령해서 데모를 조직적으로 전개했다고 밀어 부터 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구형받기도 했다. 다행히 유신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끊없는 탄압에 항거, 투쟁해오다가 좌절하고 좌절하면서 부마항쟁의 거대한 움직임을 당해보니 실로 상상을 초월할만큼 어떤 확신같은 것이 솟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중의 합성을 곧 유신정체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였습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민주화운동을 총 관할할 수 있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결성 민주화의 물꼬를 터고

6·10항쟁을 이끌어내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다. 계속되는 대정부투쟁을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펼쳤다. 1983년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장애자 선교사업 계획서를 제출, 1984년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승인을 받고 1985년 한울장애자 자활센터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활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의 저변확대를 주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는 정상인과 장애인의 격을 없애기위한 그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판단력이 빠르고 오나비한 자기주관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실천하려는 최목사는 너무도 외롭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 - 부산 민주화의 큰 획이었던 최성목 목사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은 웃음을 간직하고 매사에 임하는 그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항시도 헛시간을 보낸적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은 철저하게 가난한 벗삼아 살아온 것이 그의 전생애이다.

최성목목사의 삶의 끝은 누구보다 깊게 패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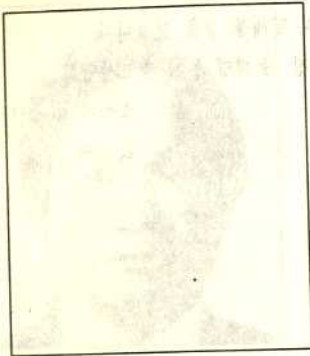
민주화운동추진과정에서 술한 주문과 오해속에서 들지들부터 의면당해야 했던 그 권력에 기행하고 있는 기성교회의 박해속에서도 굳굳하게 대항해야 했던 그 이데올로기의 질풍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했던 고행.....등 이 시대의 선지자가 겪어야 하는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 가득 가슴에다 품고 떠나갔다.

경주선산에 장애자학교설립이 꿈이었다는 그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민주화의 갈망만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출처 : 주간 인물>



## 성 순희 (당시 55세)

### 慕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38년 9월 부산 영도 출생
- 1955년 부산여중, 남성여중, 새한중학교 졸업
- 1958년 부산 남여상 졸업
- 1959년 3월 1일 손병선씨와 결혼
- 1960년 4월혁명때 앞장선 남편이 5, 16 쿠데타 이후 투옥되자 생선장사를 하며 남편 옥바라지를 함
- 1989년 10월 큰딸 민옥이 해직되자 전교조 교사가족회 서울지역회장, 전국 부회장 맡음
- 1992년 9월 26일 남편이 안기부에 연행후 기나긴 수배생활을 시작
- 1993년 7월 7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 1993년 8월 15일 운 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성순희 동지의 삶과 죽음은 그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4.19때부터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손병선 선생과 민주화, 노동운동 등에 헌신하고 있는 세 딸의 뒷바라지로 한평생을 살아온 동지의 고난과 역경의 삶은 이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어머니상이 아닐까.

#### ◎ 동지를 생각하며

【통일가족 손병선 일가의 비극】

감옥의 딸, 사경의 어머니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통일운동가 손병선씨의 아내 성순희씨(54)가 15일 오후 8시 담도암으로 끝내 운명했다. 92년 10월 아버지를 도왔다는 이유로 구속된 둘째 딸 손민영씨(33)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남편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배령이 떨어져 위독한 몸임에도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선 7월 17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닭백숙에 인삼달인 영지차, 김밥, 불고기, 명게 등이 입원실 엘리베이터 앞에 펼쳐져 있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구치소측으로부터 만 하루의 외출을 허가받은 민영씨를 위해 부랴부랴 친지들이 싸들고 온 것들이었다. 어머니 성순희씨에게 가장 절박했던 것은 죽기 전에 가족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일이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노력으로 7월 17일 저녁 모녀상봉이 이뤄진

것이다.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연신 초초하게 민영씨의 남은 시간을 재고 있었다.

어머니 성순희씨.

남편 손병선씨와 딸을 감옥에 두고 그녀는 아홉 달 여의 도피생활을 보내야 했다. 이미 혈기에 찬 나이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더욱이 남편이 연행되기 전날, 남편과 함께 당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의사서진탕을 입은 상태였다. 게다가 전해에 받은 폐장염 수술 후유증까지 남아 있었다.

안기부에서 그녀를 찾기 하루 전날 그녀는 가까스로 도피의 길에 올랐다. 물론 가족들과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19때 아버님을 감옥에 보내면서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없이 끌려가 불구의 몸이 되어 나오는 걸 슬하게 보셨지요. 수사기관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감은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공포감 때문에 어머니는 끈질기게 도피생활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막내딸 민아씨의 말이다.

불가피하게 그녀의 도피생활이 끝난 것은 지난 7월 7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였다. 이미 온몸은 심한 황달 상태, 병명은 패혈증이 걸린 담도암이었다.

"너무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온몸 황달도 40여일음 지난 것 같군요. 암세포도 일년내에 생긴 듯합니다."

담당의사의 말이었다. 바람을 불어넣은 듯 누렇게 퉁퉁 부어오른 채, 혼수상태를 오가는 성순희씨는 누가 보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미안하다"

가까스로 이어가는 그 한마디. 죽음이 눈앞까지 와 있는데도 질기게 버티다 그 끝에 이르러서야 응급실을 찾은 성순희씨의 첫마디였다. 그런 몸을 한 그녀가 근 열달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불고 대답할 건강상태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옥 안의 남편과 자식생각에 모질고 지독스럽게 버티고 견뎌냈을 것이라는 추측 외에 별 도리가 없다.

#### 【손씨 일가의 비극】

손병선씨는 학생 시절인 4.19 때부터 오로지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삶이었고, 부인 성순희씨 역시 그런 남편을 둔 덕분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운동의 대열에서 벗어나보지 않았다.

성장한 그들의 세 딸 역시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다. 두 분은 우리를 지켜만 봐 달라"며 각자의 역할을 찾았고 그들은 그래서 한 덩어리의 '통일가족'이 되었다. 큰 딸 민옥(35)은 교육현장에서, 둘째 민영은 민중당 등을 오가며 셋째 딸 민아는 노동현장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해왔다.

93년 아버지 손병선씨는 대남방송을 듣고 간첩 이선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민영씨는 아버지를 도와 대남방송을 청취 기록했다는 이유로 7년형 선고, 그리고 어머니 역시 남편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배령이 떨어졌다.

9개월여의 수배생활 끝에 사경의 몸으로 성순희씨가 세브란스 응급실을 찾았을 때 상황을 보도한 한 일간지의 작은 박스기사는 「손씨 일가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네들의 가정이 단란한 행복으로부터 비껴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손씨 가족이, 아니 어쩌면 가장인 손병선씨가 30여년 전 '통일'을 머리 속에 넣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일지도 모른다. 이 시대의 통일운동이란 개인의 행복과는 평행선을 그리면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현실은 언제까지 우리 앞에 괴이하게 버티고 서 있을 것인가.

무기수 남편을 끝내 보지 못하고

8월 11일, 다시 찾은 세브란스 병동.

이날 성순희씨는 보다 밝아졌다. 계속되는 악몽에, 냉찜질로라도 잠을 쫓아달라며 재근하다 오랜만에 곤히 한 잠 잔 덕택이다.

"지금 과일이 얼마나 있나?"

"사과 두 개랑 포도 한 송이가 있어요."

"사과는 먹지 말고 어데 잘 숨겨두그래이. 니 아빠 드려야 한다."

힘든 한마디 한마디하면서도 옥 안의 남편을 챙긴다. 꿈에 서울구치소를 다녀왔노라고....

병원 창밖에선 학생들의 합성과 노랫소리가 이어진다. 범민족대회를 준비하느라 지방서 올라온 학생들이다. 마치 어머니를 격려하기라도 하려는 듯.

손씨 부녀의 담당변호사는 손병선씨와 성순희씨의 특별접견을 신청했다. 그래서 성순희씨는 남편을 만날 그 어느날 그 시간을 위해 사과 두 개를 칭기며 창 밖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창 밖의 노랫소리는 정말 힘이 되어줄 것인가.

내내 병원을 지키던 이 가정의 막내딸 민아씨는 8월 또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 지난 6일 아직도 영어의 몸인 양심수 3백여명을 내놓으라며 대전교도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다가 전경의 방패에 머리를 맞아 15cm가 찢겨나갔다고 한다. 사당의원에서 만난 그녀는 의외로 무척이나 밝은 표정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밝은 낙관으로 이겨 내려는 듯한 웃음이었다.

"덕분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있어요."

문병객의 위문에 대한 민아씨의 대답이었다. 도대체 그들 가족 앞에 벌어진 이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곧 깨어날 꿈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7월 18일 어머니를 뒤로 하고 만 하루만에 다시 교도소로 향하던 민영씨의 눈빛 또한 그러했다. 아무런 슬픔도 내색하지 않으며 입원실에 와준 이 사람 저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어머니의 병상을 떠나던 민영씨. 돌아가 독방에 앉은 그녀는 지금 만 하루 동안의 그 꿈을 어떻게 되새기고 있을까.

그러나 되새길 꿈이라도 있는 민영씨는 행복하다. 사경을 헤매는 아내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끝내 아내를 떠나보낸 그녀의 아버지보다는.

(93년 9월 말지 기사)

## 김영자 (당시 50세)

### 舊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44년 3월2일 충남 출생
- 1963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입학
- 1966년 대학 졸업후 정읍농림고등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
- 1969년 3월 상계동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원에 농사 시작
- 1975년 지역탁아소인 '윈터 어린이집' 운영
- 1977년-78년 '가톨릭농촌여성회' 초대회장 역임
- 1986년 성남민주화운동연합 여성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 1989년 경기도 여성농민위원회 총무 역임
- 1990년 '큰우리 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
- 1993년 3월 위암진단을 받고 투병
- 1993년 9월 11일 오전 9시30분 운명

#### ◎ 유고글

##### 농촌여성도 인간이다

농촌여성 운동은 여권운동이나 아니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오가고 있으며 농촌여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 꼭 걱정스럽고 위험스럽다는 듯한 표현을 자주 접해오고 있다.

농촌여성 운동은 단순한 여권운동이 아닌 농업문제의 본질적 차원에서 농민 안에 있는 농촌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농촌여성의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인간으로서 권익신장을 위한 일련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농촌여성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촌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이 여성문제만 다루면 모두 해결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일으킨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업문제 해결없이 농촌여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없으며 농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해서 농촌여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농촌여성은 농업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농촌여성 스스로

가 힘을 모아서 총체적 운동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그 능력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농민이라할지라도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어려움은 남성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하겠다.

농업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인식된 남성 가운데서도 농업문제에 대한 논리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시각을 지녔다고 하겠으나 그 실천 과정에서 표현되는 생활태도와 농촌여성 문제를 보는 시각은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인 남존여비적 인식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우리 농촌 여성들로서는 목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여성만이 안고 있는 과제와 농촌 내부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알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과 총체적 농민운동의 차원에서 농촌여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케했고 실천적 단계에 임하여 농촌여성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농촌여성 문제의 일면이며 여기에 농촌여성운동의 필연성과 자주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농촌여성 운동은 여성해방운동으로서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이끌고 농사일을 떠나서 살기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한 남자를 닮은 여성으로 선머슴아처럼 되자는 것도 아니며 적대적 감정에서 남성에 대한 단순한 여성 상위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대립관계에서 싸우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농가의 주부로서 의무와 희생만 강요해왔는데 이제는 농촌여성의 권리도 찾고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가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에서 존중받고 사람대우 받는 여성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어찌 그대로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존중하고 대우받는 부부를 보면서, 그 화목한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자란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사람을 대우할 줄 알고 대우도 받을 줄 알게 되는 민주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자녀로 구성된 사회는 민주화가 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농촌여성 운동은 가정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며 인간 평등적 인권운동이요 나아가서 인류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이룩하는 데 참여하려는 진실한 여성으로서의 소망인 것이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믿기 때문이다.

(가톨릭 농촌여성회 회지인 (농촌부녀)에 나온 글)

#### ◎ 추모글

##### 【신문기사 중에서】

한국여성농민운동의 산 증인이며 지역민주운동의 대모로 알려진 김영자씨가 위암선고를 받고 투병중 끝내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던져주었다.

1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병원 영안실에는 곳은 날씨에도 살아생전 사회민주화와 여성농민에게 쏟았던 김씨의 뜨거운 열정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6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정읍농고 교사 생활을 시작으로 이어진 김씨의 삶은 자주적인 여성농민운동 조직의 건설과 지역운동의 대모로서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25년간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는게 주변 사람들의 설명이다.

지난 77년 김씨가 산파노릇을 한 한국가톨릭 농촌여성회는 해방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여성농민 단일조직으로서 이후 89년 전국여성농민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전국

60개 군에 조직을 갖춘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국농촌탁아소연합 준비위원장 엄영애씨는 "슬하에 4남매를 둔 어머니이면서도 아내(남편은 김준기 전 신구전문대 교수)로서의 역할을 소중히 여겼던 김씨는 여성농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고 회상하며 "운명하기 얼마전에도 그동안 모아온 여성농민운동사 자료정리와 여성농민회의 재정자립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9시 성남병원에서 '여성농민장'으로 치러진 뒤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 【추모의 글】

삼가 고 김영자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지금 조사를 읽는 이 순간 일년 전 성남연구창간기념식 때의 여사님의 밝고 화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여사님의 명복을 빌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령이시여, 제 말이 들리십니까? 저는 김준기 선생과 4월혁명연구소 동지이며 김준기 선생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평화통일 연대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친구 기세춘입니다. 여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는 김준기 교수님을 사귀지도 얼마되지 않고 여사님을 뵈온지도 얼마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두 분을 존경했고 좋아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저에게 김준기 교수를 처음 소개한 어느 선배님 말씀이 김교수는 정말 우리 민족 운동권에서 보기드문 이론가이며 몸으로 실천하는 일꾼으로 성품이 맑고 깨끗한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김교수를 두 번 만났을 때 말하기를 "여보 김교수! 자네는 정말 몸이 좋은 친구군! 사실 나야 맘으로만 운동을 하는 물이 간 놈이라 자네에게는 썩은 생선 냄새가 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같이 두려운 친구를 사귀면 나도 물이 좋아질 것 같으니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김교수를 존경하는 벗입니다.

또 저는 김여사님을 친구의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여성운동가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정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가지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말하지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조사로써 그 말을 대신하게 되었군요. 사실은 저도 김여사님과 똑같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중학교 일학년 때부



더 4H구락부운동을 열심히 했고 사범학교를 나와 국민학교 교편을 잡다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조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사님처럼 힘 없는 농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의로운 결심으로 대학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나와 높은 관직에 앉아 힘없는 자들에게 거들먹거리려고 대학을 갔던 속물이었습니다. 김여사님에게 저의 이러한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을 생전에 고백하려고 했는데 여사님은 이제 이승의 사람이 아니군요!

.....

존경하는 여사님! 여사님께서 그렇게도 염려하시는 농촌은 요즘 냉해로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요 며칠동안 날씨가 좋아 우선은 한결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러나 여사님이 바라시던 이상적인 농촌은 풍작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우리들 삶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농촌이었고 이러한 농촌을 지키기 위해 여사님은 싸우셨던 것입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류는 생산기능을 공장이라는 살벌한 물신의 신전에 거의 빼앗기고 소비기관으로 전락한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 외에 유일하게 남은 생산공동체인 농촌이 살벌한 물신에게 해체되려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에서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마저 핵가족화로 무너지려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의 문명입니다. 인류는 이제 이리떼와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너는 죽고 나만 살자는 피비린내나는 무한경쟁의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야수의 세계가 되려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겠습니까? 더구나 공동체에 익숙한 인정이 넘치고 순박한 여사님과 우리들의 고향 농부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살벌한 야수의 정글에 버려져 앙코배기 코끼리떼들에게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 여사님은 이승을 버리고 저승으로 떠나셔야 하니 어찌 눈인들 감으셨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여사님!

그러나 염려를 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사님을 보내기 위해 모인 여사님의 벗들 그리고 남군님이자 동지였던 김교수의 벗들 그리고 성남의 여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정에 넘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스럽고 섹섹하고 영민한 여사님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한 우리의 보금자리를 결코 이리떼들이 짓밟지 못할 것입니다. 여사님께서 못다한 일들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며 우리들은 그 몫을 결코 다할 것이오니 여사님께서 편히 잠드소서!

여사님은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빈민운동가인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 고난에 찬 아내의 길도, 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의 길도, 여성농민운동가 그리고 여성 사회운동가로서 용감한 삶을 살아온 참으로 훌륭한 일생이었습니다.

영령이시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1993년 9월13일 평화와 통일을위한 연대회의 기세춘)

## 문 의 환 (당시 76세)

## 慕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18년 만주 북간도 명동에서 출생
- 1932년 은진중학교, 송실중학교 재학중 신사참배 거부로 중퇴
- 1976년 '3.1 민주 구국사건'으로 첫 투옥
- 1980년 '내란예비음모죄'로 세 번째 투옥
-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 1985년 5월 서울대 강연도중 이동수 동지 분신사건으로 인해 선동죄로 수배를 받고 자진출두 네 번째 투옥.
-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
- 1989년 3월 방북
- 1991년 6월6일 소위 '분신정국'에서 장례위원장을 맡는 등 활동. 형집행정지 취소로 재수감(여섯번째 투옥)
- 1992년 1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 1993년 4월 '통일맞이 칠천만 거레모임'운동 제창
- 1993년 8월 제4차 범민족대회 대회장
- 1994년 1월 '새로운 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해 전력하던 중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문익환 목사는 한마디로 암울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며 줄곧 재야 민주운동을 주도해 온 정신적 지주였다.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사회진출 후에도 평범한 목회자로서 신학대 강단에 섰던 문목사가 유신정권의 압제에 분연히 맞서 민족민주운동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74년 10월 반유신 재야단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가하면서부터였다.

75년 8월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던 장준하선생의 의문의 죽음을 계기로 평범한 재야인사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한 복판으로 뛰어든 문목사는 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을 주도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첫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그후 문목사의 삶은 절반 가까이를 감옥에서 보낼 정도로 정권의 끈질긴 탄압으로 점철되었다.

77년말 투옥 22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문목사는 지난 78년 10월 '유신체제 6주년을 맞아'라는 성명을 발표한 사건에 연루, 재수감됐고 유신정권에 종언을 고한

10.26으로 두번째 출소한 이후에도 80년 [YWCA 위장 결혼 사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86년 5월 민통련의장 당시 [5.3인천사건] 등 민주운동의 역사적 현장마다 항상 선봉에 서서 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감내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목사는 85년 3월 민주통일국민회의, 민중민주운동 협의회 등 당시 재야단체를 통합한 민통련 발족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으로 활약했으며 89년초 전민련의 출범 후에는 전민련 고문을 맡는 등 재야운동의 대부로 서 큰 업적을 남겼다.

문목사는 89년 3월 통일문제를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을 구두선처럼 외치면서 실제로는 탁상공론만 일삼았던 당시 정부 당국자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또한 민족의 통일의지를 온 민족에게 호소하기 위한 의거였다.

문목사는 이 사건으로 9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돼 또 다시 수감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10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으나 91년 6월 재수감돼 통산 6차례에 걸쳐 8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문목사님은 기회만 있으면 "본단 50년 이내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본단이 고착된다"며 통일운동에 남다른 집념을 보였다.

문목사는 93년 3월 출옥 후 노령과 계속된 감옥생활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고문 겸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제4차 범민족대회 남측 대회장을 맡아 통일운동에 주력해 왔다.

또 문목사는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 등 새로운 통일운동단체의 결성을 추진했다.

문목사는 이밖에도 옥고를 치르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모아 '옥중일기'라는 시집을 발간한 것을 비롯, 자신의 건강유지 비결을 담은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단행본을 집필하는 등 저술과 강연활동에도 열의를 보여왔다.

1918년 만주 북간도에서 출생한 문목사는 운동주 시인과 교분을 가져왔으며 34년 신사참배 거부로 평양승실중학교를 중퇴하고 그후 평양고보와 광명고보를 거쳐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으나 "나는 일본을 위해 싸울 수는 없다"며 학도병으로의 참전을 거부하여 만주로 돌아왔다.

해방 후인 47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한 문목사는 55년 미국으로 유학, 프린스턴 신학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 재야운동에 투신하기까지 한빛교회 목사, 한신대학교수 등을 역임했다.

'통일은 뻤어'라고 힘주어 외치시던 목사님은 유신의 압제에 분연히 맞서고 이후 치열한 반독재 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일관해 오신 민족의 큰별이었다.

### ◎ 유고글

#### 【동지의 글】

지난해는 민족 통일 운동이 심각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해입니다. 그 시련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저는 범민련 남쪽본부 준비 위원장으로 서 제 직책을 다 못하고 도중하차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감천만입니다.

제가 남쪽본부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통일 운동을 그만두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남쪽의 통일 운동을 더 크게 묶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쪽과 해외 통일 운동 세력과 손을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루

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단 장벽을 결정적으로 돌파해 내야 할 1994년 벽두에 서 있습니다. 금년에 벽을 뚫어내지 못하면 1995년은 민족 통일 원년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갈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이 벽을 돌파하지 못한 한을 천추에 남길 것입니다.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변혁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변혁 가운데 민족통일보다 더 큰 변혁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통일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집어삼키는 통일이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변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변혁은 남과 북의 변증법적인 대중합이어야 합니다. 일찍이 없었던 새 세계를 창조해 내는 일입니다. 후천개벽입니다.

90년 1차 범민족대회 이후로 통일 열기는 요원의 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인모용을 북으로 보내드린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백에 여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뻐 환영할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통일운동의 틀은 커져야 합니다. 이 또한 기뻐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7천만 겨레의 통일 의지를 담아낼 틀을 다시 짜고, 세 지역의 통일 운동이 한 흐름이 될 수 있는 길 또한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분의 답신을 기다립니다.

<범민련 북쪽본부 백인준 의장님, 범민련 해외본부 윤이상 의장님, 범민련 남쪽본부 강희남 준비위원장님께 보내는 마지막 글 중에서>

### ◎ 추모글

#### 【시】

당신은 길을 만들었다.

대포와 탱크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형제를 찾아가는 길을 내었다.

철조망과 지뢰밭을 지나

형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길을 닦았다.

모두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못산다고

외치고만 있을 때

당신은 표표히 혼자 나가 길을 만들었다.

철조망에 굵히고 가시에 찢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당신으로 해서 우리는

보다 값지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보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데 있는가를 배웠다.

이 나라 나갈 길이 어데인가를 알았다

당신으로 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발길을 막을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문을 활짝 열었지만

혼자서 길을 내었지만

당신은 혼자서만 가지 않았다.

우리들 뒤쳐지면 되돌아와 이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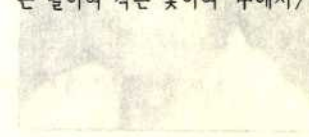
쓰러지면 일으켜세웠다.

갈라지려는 자 주저 앉으려는 자 가슴에 안았다

그 따뜻한 가슴에 그 포근한 가슴에

<문익환 선생 영전에 바치는 신경림의 시

"큰 별이여 작은 꽃이여" 중에서>



## 이 오 순 (당시 68세)

###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26년 전남 광주 출생
- 1985년 막내 아들 송광영 동지 분신으로 운명
- 1989년 유가협 회원으로 활동
- 1991년 전국민주화 유가족 협의회(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부회장 역임
- 강경대 동지 치사경관 공판 도중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다가 1년6개월 수배생활
- 1993년 송광영 동지 묘역을 마석모란공원으로 이장함
- 1994년 1월 2일 문익환목사 장례식에 참여하고 충격받음
- 1994년 1월 26일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1985년 경원대에 다니던 막내아들 송광영 동지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학원안정법 철폐하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분신하여 운명한 뒤 경원대 신문의 인터뷰에서 "난 민주도 모른다요. 동지가 다 뭐다요. 우리 광영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있다요."라고 말 씀해 만인의 가슴을 울린 이오순 동지는 서울 기독교병원에서 화마와 싸우면서도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부르짖는 아들 광영과 조국의 어머니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여러 투쟁에서 이오순 동지는 '감동의 황색 가족가방'으로 불리우며 백골단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1991년에는 유가협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회원 조직화에 앞장서다 강경대 동지 치사 경관 공판 도중 부당한 공판에 항의하다 법정소란 혐의로 1심에서 1년 6월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94년 문익환 목사님의 서거로 충격을 받고 "나 죽으면 광영이랑 문목사님 묻혀 계신 마석모란공원에 묻어주고, 꽃일랑 차라리 종이 꽃으로 해줘. 문목사님처럼 많은 통일의 씨앗을 뿌리고 죽어야 하는데, 95년까지만 사셨어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텐데."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결국 심장병으로 운명하여 마석모란공원 목사님과 함께 묻혔다.

#### ◎ 동지를 생각하며

故 이오순 어머니.  
우리 유가족들은 이오순 어머니를 '광영어머니'라 불렀습니다.

9년전 막내아들 송광영 동지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분신, 운명한 후 광영어머니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깨끗한 성품을 가진 포근하게 다가오는 우리결에 항상 있는 평범한 어머니에서 동지의 어머니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어 찢어진 가슴 부둥켜 안고 죽어간 자식의 한을 풀기 위해 자식보다 더욱 열심히 살아 오셨습니다. 광영어머니! 자식의 한을 다 풀지 못했는데 어떻게

먼저 가신단 말입니까  
광영어머니!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마다 가슴속에 자식들의 무덤을 만들어두고 그 쓰린 가슴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어 서로의 찢긴 상처를 핏아 주며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억울하게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의 죽음으로 살해당한 자식들의 한을 풀기위해 136일동안이나 농성을 했을때도 광영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모범이셨습니다.

차가운 겨울의 거리거리에서 양심수 석방을 외칠때에도, 오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자식들이 계속 죽어갔을 때

어느 집회에서나 어느 투쟁에서나 우리는 항상 동지였습니다.

이제 광영이와 함께 잠들 수 있겠군요.

광영이가 잠결에 이불 걷어차면 덮어주시고 다른 아들, 딸들도 돌보아 주세요.

1994. 1. 28.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강민조

#### ◎ 유고글

【시】

우리집 화단의 다알리아 꽃

광영아! 보고 싶은 내 아들이!

우리집 다알리아 꽃은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잎이 자라서 초 가을부터 다시 꽃이 피어

큰송이, 작은 송이, 산들산들 가을바람 타고

싱글벙글 엄마를 쳐다보며 반기고 있는데

우리 막둥이는 길 떠난지 8년이 되도록

못 오는가...

길이 멀어 못 오느냐?

일이 바빠서 못 오느냐?

업서에 적어서 안부도 못 하느냐?

무심하고 야속한 막둥이가 보구싶어서

불쑥불쑥 모란공원 무덤엘 찾아가면

오는지 가는지 불려도 대답없고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어머니 심정 알 것도 같은데...

다알리아 꽃만큼도 물려주는구나...

어느 해 열방 아이가 다알리아 꽃을 꺾어서

야단을 치니까

우리 막둥이는 아이가 꺾는데 야단치면 되느냐고

말 했었지.

그때처럼 다알리아 꽃은 한창 피었다.

아직 피지 못한 망우리는 된서리 맞아서

제구실 못 할까 엄마는 쳐다보면 걱정이란다.

추석 다음 날, 큰형수와 너를 찾아 왔을 때에도

너는 아무 말 없고,

네 후배들이 와서 너를 대신해서 반겨주었고

3일날 학교 후배들이 너한테 갔다가

선물을 사들고 집까지 와서 엄마를 위로해

주고 갔단다.

광영아! 너도 이제는 우리 집에 해마다

탐스럽게 피는

다알리아 꽃을 닮아주어라.

그리고 이제는, 어미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거라

너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언제나, 항상 잊지 않고

어미를 챙겨주고 있으니...

너는, 민주세상, 통일세상이나 하루 빨리 오라고

빌어다오

막둥아! 사랑하는 막둥아...

# 이범영 (당시 39세)

## 舊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55년 강원도 원성군 출생
- 서울중학교 졸업
-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1976년 12월 유신반대 시위주도로 구속
-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선고받음
- 1979년 7월 형집행 정지로 출감
- '전국 병역대책위원회'를 조직, 위원장으로 활동
- 19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집행국장
- 1988년 민청련 의장
- 1990년 전국 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의장
- 1992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1994년 8월 12일 담도암으로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이범영.

그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사상가도, 뛰어난 경제가도, 불세출의 지략가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천재의 광휘가 번뜩이는 타고난 글쟁이도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는 마흔 해를 살다간 사람의 자연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장점과 동시에 많은 단점을 내보이며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수다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흔치 않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 못한다. 그는 개인의 안일과 욕망을 뒷전으로 밀쳐 놓고, 이 사회와 세계를 뒤바꾸고자 했던 혁명가, 운동가, 활동가였다.

그렇다. 그는 혁명가였다. 우리는 성장기를 제외한 그의 스무 해의 삶에 주저하지 않고 '혁명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혁명이란 말에 조소를 날리거나 적당히 제 먹을 궁리만 하며 똥물의 날파리처럼 설쳐대는 술한 소인배들 앞에, 우리는 그의 순수했던 삶을 '혁명가'라고 자랑스럽게 명명하고자 한다.

(추모문집 中에서)

### ◎ 동지를 생각하며

다시 살아오는 너를 보고 싶구나.

부모 알지른 불효막심한 놈 이제 그만 잊으라고들 한다. 모르는 소리들이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불효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으며 효를 몰라 불효를 저질렀겠는가? 모르는 소리들이다. 이승의 삶을 고스란히 두고 가는 놈의 속은 오죽했겠는가? 정 주고 살았던 이승의 식구들이 눈에 밟혀 제 갈 길인들 제대로 가거나 했겠는가? 모르는 소리들이다. 가고 오지 못할 길을 떠난 자식 앞에 울음도 사치요 호사인 줄 알기는 할까?

대학 졸업도 뺨개치고 유신 반대 시위를 할 때 알아봤지. 펄펄 끓는 기개와 용기 허튼 데 쓰질 않겠구나 짐작은 했지. 쫓겨다니면서도 한청렴 만든다고 제 한 몸 돌보지 않을 때 그 때 알아봤지. 내 자식이 아닌 겨례의 청년들 벗이요, 내 아들 아닌 역사가 낳은 아들이란 걸, 그 놈 가고 나면 서운하고 섭섭해서 빈 자리 쓰다듬고 울고 있을 더 많은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놈 떠난 빈 자리는 채워지질 않는다.

에미는 자식 놈 이름 석자만 들어도 목이 메고 범영이 친구라는 소리에 울음을 쏟아낸다. 애비 대신 실컷 울고 또 운다. 그렇게 일년을 보냈으니 이젠 놓아도 좋겠지. 한

청첩 어린 청년들 속에 자라나는 범영이의 기개를 보고 장년의 친구들에게서 범영이의 만개하는 꿈을 보아도 좋겠지. 그 낙으로 남은 평생을 누리며 살라는 게 자식 놈 소원일테지.

어느날인가는 그리도 사랑했던 조국에도 미움 없고 폭력 없고 편을 가르는 싸움도 없는 그런 날이 와 더 많은 범영이와 먼저 간 범영이를 자랑스럽게 그리는 날은 올텐데.

범영아, 이승의 짐은 벗어던지고 편히 쉬거라. 못잔 잠 한숨 푹자거라. 눈에 밝히는 견해, 승민이마저도 잊어버리고 깊은 잠 실컷 자거라.

범영아, 편히 자거라. 사랑한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도 없다고 했으니 너를 가슴에 묻은 술한 청년들로 다시 살아오는 너를 보고 싶구나.

1995년 8월

아버지가

### ◎ 유고글

【편지】

예쁜 견해와 귀여운 승민에게

잘들 있었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산과 들이 푸르게 빛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까치 종달새, 삿구기 등 새소리가 들려오는게 정말 모든 계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생기있는 때인 것 같다.

지난 어린이날에 너희들과 소풍갔던 곳도 참 멋있는 계곡이었지? 이곳에도 멋있는 계곡들이 곳곳에 있다. 먼산에서 삿구기가 삿구삿구 하고 울기도 한다. 나는 우리 나라를 이곳 저곳 돌아다녀 보면서 우리나라가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라고 감탄한다. 우리 나라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정말 화려한 강산이다. 또 우리 나라를 금수 강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비단으로 수를 놓은 듯 그렇게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이다.

너희들은 우리 선조들이 화려 강산, 금수 강산을 지키고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아름답고 색색하게 자라서 화려 강산, 금수강산을 빛내는 꽃으로 피어나거라.

요즈음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좋은 국토와 자연

을 잘 보호하고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문제이다. 가꾸기는 커녕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있다. 정부도 자연 보호를 말로만 떠들고 있지 실제로는 산에다 막 길을 뚫고 해서 산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있다. 자연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견해는 경쟁심과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다른 애들에게 잘난 척하는 듯이 보여서는 안된다. 남에게 양보도 하고 다른 애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라. 아는 것이 많다고 잘난 척하는 어린이보다 남에게 양보하고 도와줄 줄 아는 어린이를 하느님은 더 사랑하신다.

승민이는 책을 더 열심히 읽도록 하여라.

참 너희들이 어버이날 나에게 준 카네이션과 행운의 클로바는 정말 좋은 선물이었다. 아빠에게 하느님이 내려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견해와 승민이와 같은 예쁘고 착한 말들을 하느님에게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말 너희들과 같은 딸을 가진 것을 아빠는 가장 큰 행복과 긍지(자랑)로 여기고 있다.

착하고 예절 바르며 튼튼한 어린이가 되어라.

안녕!

1994.5.19.

지리산 기슭에서 아빠 씬.

### ◎ 추모글

【추모의 글】

사랑하는 이범영 의장!

무엇보다 모든 동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할 일이 많고 유능한 일꾼을 필요로 하는 이 때에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지혜와 경륜을 운동에 쏟아 넣을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에 우리 곁을 떠났기에 더욱 우리는 이 의장을 잊지 못하며 안타까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의장을 일찍 가게 했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70년도 유신 독재로부터 시작된 저항의 시절로부터 쌓이고 쌓인 울분과 정의롭고 깨끗한 심성을 지키기에 한계를 느낀 것들이 병소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원통하고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범영 의장!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 부인, 딸들의 생활에 대

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의장의 동료들이 이 의장 대신 잘 돌보아 드릴 겁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이 의장의 주변에 좋은 동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의장이 좋았기에 주변의 동료들도 좋습니다.

이 의장이 열심히 일구어 놓은 한청협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청년 단체로서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부탁은 우리가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 크게 진노하여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분열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쉴 수도 없게 졸라대는 우리를 너무나 무라저 마시고 받아주시오. 험뎁이며 숨조여 사는 이 땅의 민중들. 언제나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겠오.

부디 도와 주시오.

사랑하는 이범영 의장. 우리의 믿음직한 동지.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박 현 채 (당시 61세)

## 慕 천안 공원묘지



- 1934년 11월3일 전남 화순군 출생
- 1947년 광주수창국민학교 졸업. 당시 독서회활동 시작,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등 실천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음
- 1947년 광주서중에 입학, 전쟁발발까지 민애청 활동에 참가
- 1950년 전쟁 발발후 광주서중 학내조직활동에 전념하다가 같은 해 10월 입산
- 1952년 8월까지 빨치산 활동
- 1955년 전주고등학교 3년에 편입하여 이듬해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
- 1959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입학
- 1959년~1964년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업구조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짐
- 196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논문제목은 <자본주의와 소농경제>
- 1963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서 강사 시작, 인혁당사건으로 중단.
- 1964년 인혁당사건에 연루, 1965년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 1965년 <국민경제연구회>의 연구원, 얼마 안되어 사실상 상층부가 흩어졌으나 혼자서 그 간판을 떼매고 다녔음
- 1967년 <한국산업의 지역적 편제와 불균형 발전의 요인분석>을 집필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민족경제론의 기초가 되는 다수의 평론 또는 논문을 발표함, 197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홍익대, 국민대, 우석대, 경희대, 충남대, 한신대 등에서 강의함
- 1978년 이미 발표된 평론, 논문들을 모아 <민족경제론>을 출판 <민중과 경제>, <전후 30년의 세계경제사조>도 같은 해에 출판
- 1979년 <임동규간첩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복역함
- 1980년 <134인 지식인선언>에 참가, 5.18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으나 풀려남
- 1981년~84년 <한국농업의 구상>, <한국경제의 구조와 논리>, <한국경제와 농업>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등 4권의 저서를 매년 1권씩 출판
- 1985년 <창작과 비평> 제57호에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 이른바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의 단서를 제공함
- 1986년 <한국경제구조론> 출판
- 1987년 제2회 단재학술상 수상
- 1988년 한국사회연구소를 창립하는 데 기여, 1992년에는 이를 한겨레사회연구소와 통합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소를 설립. 공동이사장에 취임
- 1989년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취임,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출판.
- 1995년 8월 16일 9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약 2년간 투병하다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박현채 선생의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

박현채 선생은 의세를 배제하고 민족자립 경제를 주창한 남한의 대표적 민족경제학자였다. 박현채 선생은 70-80년대 가혹한 민주화운동 탄압기간 동안 민주화 운동가로, 빼어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며 많은 고난을 겪은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93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박현채 선생은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 94년 문익환 목사 별세 소식을 듣고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긴 투병생활을 해왔다.

34년 11월3일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그는 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16살의 나이에 빨치산으로 입산했다가 52년 8월 북부 관통상을 입고 하산했다. 뒷날 당시 빨치산부대 대장이 "산을 내려가 민중을 위한 경제학자가 되라"며 하산시켰다고 박현채 선생은 회고했다.

전주고를 거쳐 55년 서울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그는 59년부터 64년까지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로 있으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하에서 한국 국민경제의 독자적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이론의 온상지 역할을 했다. 이때 함께 활동한 학자들은 주석균(회장) 유인호 김병태 김낙중씨 등이었다.

이때 당시 몇가지 일화가 있다.

선생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학원본부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감찰부장과의 토론 끝에 그와 의형제를 맺고 당시 학원의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다.

또한 선생이 한국농업문제연구회 연구위원 공채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하고도 시험관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험관에게 대들어 면접에서 불합격 할뻔하였는데 시험관 중 한사람이 그 기백을 사서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하여 합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들은 선생의 당당하고도 힘찬 기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백은 선생이 한평생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양심앞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

64년 박현채 선생은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된다.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도예종 은닉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선생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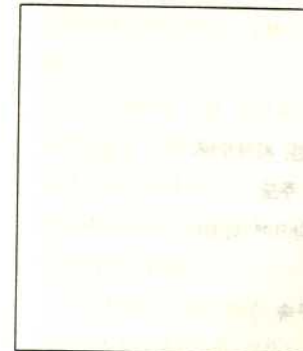
후에도 79년과 80년 두차례 복역과 구금을 당했다.

선생은 65년 이후 '중소기업의 지역적 불균형 발전 문제'에 연구범위를 한정했으나, 실천의지는 늘 치열했고 시선은 잠시도 운동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다. 70~80년대 민주화 및 사회변혁 운동에서 그의 이런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은 동료와 후배학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선생은 78년 대표적 저서인 <민족경제론>을 펴낸 이후 90년까지 <한국경제의 구조와 논리>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등 12권의 저서를 내며 많은 후학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85년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를 계간 <창작과 비평>에 기고함으로써 유명한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선생의 민족경제론은 60년대 한국자본주의가 종속적 발전의 길로 치달던 시기에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중적 삶의 회복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해 70년대 유신독재 시기의 민주화운동과 80년대 민중운동 속에서 중요한 실천적 가치를 제공했다. 그러는 한편 선생의 이론은 이론적 완결성과 일관성의 결함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80년대 중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민족경제론과 이론적 통합에 나섰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선생의 이런 학문적 미완은 이제 선생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후학들의 숙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문한영 (당시 77세)

墓 수유리 도봉산 묘지



- 1919년 원산에서 출생
- 1930년 10대의 노동자로 원산부두 노동자파업에 참가
- 1944년 '건국동맹' 원산지부 참여
- 일제패망 뒤 '건국준비위원회' 참여
- 1960년 4월 혁명 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 조직위원장
- 1980년 5.16쿠데타로 투옥
- 1989년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 재건에 힘씀
- 1996년 4월 18일 운명

◎ 동지를 생각하며

문한영 선생님을 그리며.

하얀목련보다 더 깨끗하게 사셨고, 타는 진달래 보다 더 뜨겁게 조국을 사랑하셨던 소암 문한영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수유리 산자락 그 목련과 진달래가 다투어 피고, 4월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진달래 동산에서 먼저간 원혼들을 기리면서 선생님 또한 뒤따라 잠드셨습니다. 의세와 분단과 독재에 맞서다 산화해 간 영령들과 함께 못했음을 늘 마음 아파하시더니 한평생을 자주와 통일, 해방만을 염원하며 살아오셨던 선생님이 그땀 채 이루어지기 전에 못 사람들 가슴에 큰 슬픔만을 남기고 말없이 가셨습니다.

문한영 선생님!

선생님의 평소 말씀은 아직도 저희들 귀에 쟁쟁히 들리고 있습니다.

배부른 노예보다 허리띠 조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존엄사상

바로 그것은 민족존엄으로 이어지고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의견이 갈리어 갈등을 겪는 것을 서로의 상처로 안타까와하시면서

민족분단의 아픔이 바로 통일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제 민족이나 타민족 혹은 제도나 법으로 인간이 인간을 속박하는 것을 반대하여 해방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애로운 모습이었지만 의세와 분열주의자에게 한치의 틈도 주지않고 준엄하셨습니다.

소암선생님! 선생님은 아호(雅號)만큼이나 너무도 깨끗하게 그리고 바위처럼 자기신념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자기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선 밤 한 톨 동전 한 닢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으며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도봉산 아래 오랫동안 사시면서 도봉산 만장봉의 그 회고 깨끗함 의연함을 호로 삼으며 산을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것은 풀 한포기, 모래 한 알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던 조국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산에서 그것도 4월 영령들 곁에서 잠드셨습니다.

선생님의 덕목과 소박함과 현신성, 애국의 길은 사람들 가슴마다에 남겨져 선생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 김말룡 (당시 69세)

##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27년 2월 2일 출생
- 1945년 11월 조선기계제작소 노조 선전부장
- 1946년 8월 노사분쟁사건 관련, 구속
- 1954년 3월 이승만 대통령 유시위반사건 관련, 지명수배
- 1956년 10월 노총 자유당 기관단체 탈퇴운동 주도
- 1958년 3월 국학대학 경제학과 졸업(고려대학교에 합병)
- 1959년 10월 전국노동조합 총협의회회장
- 1961년 7월 박정희 대통령 비난사건 관련 구속
- 1967년 9월 전국연합 노조 위원장
- 1978년 2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1978년 10월 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 소장
- 1980년 5월 5.18 사건 관련 구속
- 1982년 2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 1986년 6월 전국평신도협의회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전국본부공동의장
- 1992년 4월 제14대 국회의원 (전국구)
- 1996년 10월 3일 오후 5시30분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김말룡 동지는 96년 10월 3일 별세했다. 당시 69세인 김말룡 동지는 평소 매우 건강한 체질로 노익장을 과시했는데, 이날 워킹홀리데이 아차산을 조카(김상열)와 함께 등반 도중 (16:30분경) 정상 부근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풍납동 소재 서울중앙병원으로 급송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17:30분경 끝내 숨을 거두었다. 동지는 전날 (10월 2일) 민주노총 투쟁본부 회의에서 밤 10시까지 각 단사 위원장들과 함께 노동법 개정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갖기도 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김말룡 동지의 생애

김말룡 동지는 지난 50년간 8차례에 걸친 투옥에도 굴하지 않고 이땅의 노동자 권리를 위해 초지일관 싸워오신 분으로 자유당 치하인 50년대 말 노총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투쟁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였고, 4.19

혁명 이후에는 노총 위원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가톨릭 노동상담소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의 권리향상에 평생을 헌신하신 명실상부한 '한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었다.

특히 14대 국회 4년동안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는 전국 방방곡곡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을 모아왔다. 특히 94년 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던 소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은 김말룡위원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단순한 관행으로 넘어가고 말았을 사건으로 김말룡 동지의 일관된 정의와 용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이었다.

### ◎ 추모글

동지를 그리며  
역사의 격랑을 앞장서 헤쳐 온 선구자  
김말룡 동지는 전두환 등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6

차례의 구속을 당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다. 특히 정치깡패들의 위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도 수없이 많으며, 5·16쿠데타, 5·18쿠데타와 같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구속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1960년 4월 민주혁명 이후에 관변 어용단체였던 대한노총을 민주화하여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5·16쿠데타의 주모자인 박정희에게 한 "개새끼"라는 말 한마디 덕분에 한국노총 위원장에서 쫓겨나고, 고문실로 끌려가 갖은 만행을 다 당하였다.

1987년 국민항쟁 당시에는 천주교 전국평신도협의회 사회정의위원장으로 전두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1992년에 민주세력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14대 국회에 진출하였다.

### 【시】

#### 아버지의 아침

-김말룡 선생님께-

오늘도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깎습니다  
황망히 일어나 나가신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습니다

잠시 아버지의 온기를 가슴에 안으며 생각해보면  
아침 밥상, 아버지의 수저는 그대로 치워진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거르며 살아서야..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우리집의 아침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한숨처럼 들었습니다

강직하게 사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과  
어려운 생활을 남기는 일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부자리의 끝에서  
아버지의 뒤척이며 지센 밤이 느껴집니다

땀을 흘리며 사는 이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아버지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지센 밤에  
어찌 가족의 조악한 살림이 들어갈 틈새가

있겠습니까

관성에 반대하는 삶에, 돈봉투가 횡횡하는 국회와  
재벌들의 유착을 반대하는 삶에

몇 번씩 다시 국을 태우는 어머니의 아침은

언제나 되어야 환한 웃음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의 푸른 작업복과

서민의 부지런한 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서 계신 아버지

저들의 아침 속에서 늘 희망을 함께 가꾸시는  
아버지

오늘 아침 아버지가 없는 밥상에 둘러앉아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의 지난날을 떠올립니다

오직 한 길로 묵묵하게 걸어오신 아버지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도 강직하고  
깨끗하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침 앞에서

당신의 꿈꾸는 세상에 환하게 웃고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이웃들의 모습을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신동호(시인)

# 강상철 (당시 22세)

##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1964년 3월 24일 전라남도 해남 출생  
 1986년 목포전문대 건축과 재학중 미등록으로 제적  
 목포 사회운동 청년연합 사무차장 역임  
 목포 평강교회 청년회 총무  
 1986년 6월 6일 12시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화운동 탄압 중지외 5.18 규명, 직선제 개헌 단행을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외치며 분신  
 1986년 6월 26일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강상철 동지는 1964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1986년 목포역 광장에서 분신하였다. 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의 비정함이 정국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으며 각 민주단체의 각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삼민(민주, 민족, 민중)주의를 좌경, 용공으로 모는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를 몰아내고 민주인사 사면복권 및 석방과 직선제 개헌단행을 촉구했다. "정의로운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승리의 죽음이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전 민중의 함성이며, 동참이며, 투쟁의 길이며, 승리만이 남아 있을뿐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장렬히 산화하였다.

(강상철 동지의 병상증언 중에서)

### ◎ 동지를 생각하며

분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도 강동지는 계속 살아 숨쉬며 투쟁하고 있다. 강상철 동지 분신 3주기를 맞으며 그 날의 처절하고 장엄했던 싸움을 상기해 본다. 내 조국 산천은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의연하게 포용해 버렸고 정권말기적 위협을 느낀 현정권만이 유일하게 더욱 더 압박만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 4천만 애국 민중들은, 백만애국 학도들은 가열차게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압박을 터뜨리는 힘을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다.

진실한 애국의 발로에서 동지의 넋을 기리며 내조국

한반도의 아픔을 이기고 계속된 미제와 민족 분열주의자들과의 싸움과 투쟁 속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고, 오늘도 아낌없이 온 몸을 불사르며 강동지의 함성은 살아있고 우리들 투쟁의 지름길이고, 등대가 될 것이다.

(강상철 동지 3주기 추모자료집 중에서)

### ◎ 유고글

#### 【유서】

친구에게

내가 펜을 든 것은 다름이 아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일세.

이 서신이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네. 아니 마지막으로 되어야 하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꼭 전해주게. 마지막 서신은 못 띄우고 얼굴은 못보고 가지만 신념과 확신과 우정과 민족과 민중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일세.

자네의 후손에게 자네와 나의 우정을 전해주게. 한술의 밥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네. 어여쁜 여자가 중요하질 않다네. 구차한 목숨이 중요하질 않네.

나에게 중요한 건 조국이고, 민족이고, 민주요, 민중이라네.  
 이 서신을 받아보는 날이 언제쯤일지 모르겠네. 내가 목포에서 싸우는 시간 받아 볼지, 아니면 저 세상에 가서 싸울 때 받아 볼지는 모르겠네.  
 . . . . .  
 마지막으로 작은 시 한 편 적겠네.

아! 민주여 자유여 평등이며  
 그대는 어디로 가 있는가?  
 그대가 있는 곳에 나 함께 갈련다.  
 그대가 있는 곳에 나 함께 갈련다.  
 나 함께 그대와 더불어 살련다.  
 외로운 땅에 독재가 숨쉬고 그대들이 없으니 죽음의 골짜기기도.  
 오! 그대들이여 이 땅에 어서 와 나오.

1986년 6월 3일

#### 【양심선언문】

80년의 해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국이 어지러움은 무슨 까닭일까요? 80년 5월의 민중항쟁의 무참한 학살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의 비정함이 정국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으며 각 민주단체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운동권 학생의 삼민주의(민주, 민족, 민중)를 모든 매스컴에선 용공·좌경으로 몰려고 합은 누군가가 지시하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민주의를 용공·좌경이라 한다면 그들은 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며, 민족을 업신여긴 자이며 민중이 아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중이 아닌 총두목이 누구냐 하면 그는 바로 전두환이라는 것입니다. 민중착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현 전두환이름 모두가 인정하더라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참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살하였습니까? 이제는 전두환이가 죽고, 독재가 죽고, 민주가 꽃피우고 민족이 통일되고 민중이 승리할 때가 왔습니다.

정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승리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함성이며, 동참이며, 투쟁의 길이며, 승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 【우리의 주장】

1. 각 민중, 민주화 단체 탄압을 중지하라.
1. 각 민주인사를 사면복권 및 석방하라.
1. 직선제 개헌 단행하라.
1. 상수도세 지역차별 중지하라.
1. 5·18을 규명하라.
1.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는 물러가라.

1986. 6. 6 강상철

#### ◎ 추모글

##### 【성명서】

강상철 동지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5.18당시 시민대회가 있었던 목포역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을 기도, 전신에 2~3도의 중화상을 입고 지금 성물분반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의 유서(양심선언)에 의하면 광주 목포 시민학살의 원흉은 처단해야 하며 그 주동자들은 정치에서 물러나야 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 인사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불균형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세로 목포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는 독재는 죽고 이 땅에 민주가 꽃 필 날이 내 한목숨을 죽여 이룩된다면 여한이 없겠다면서 기필코 민주, 민족, 민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가 남긴 일기에도 정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승리의 죽음이라고 규명하고 내가 죽거든 높은 곳에 묻어 주어 이땅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민사 읍니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일기를 마치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계속 터지는 분신이 이땅을 멍들게 한 군부독재 25년의 결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 각 분야가 민주화되지 못함으로써 각 계층의 욕구가 분출되지 못하였으며 획일적 군인문화는 한탕주의와 동시에 분산과 같이 극단적 행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민주화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당국은

1. 직선제 민주헌법으로서의 개헌을 조속히 단행할 것이며 좌경을 방자한 민중운동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문익환목사를 비롯한 민주인사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지체없이 실시하라.

1. 광주·목포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주동자들은 참회하는 자세로 정치에 퇴진하라.

1.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세를 부

과하여 목포 시민을 허기지게 하는 시정을 시정하라.

1. 당국은 이 분신을 두고 책임회피에 급급하여서 운동권과 재야인사들이 분신을 충동질한 것처럼, 알면서도 방관한 것처럼 시중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986. 6. 9.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 고 정 희 (당시 28세)

##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60년 12월4일 전남 광주 출생
- 1979년 3월 연세대 전기공학과 입학
- 1981년 육군 입대
- 1986년 1월 연대 전기공학과 졸업후 IBM입사(호주 파견근무)
- 1987년 3월 퇴사 후 연대 정외과 편집학
- 1987년 10월~12월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한 청년, 학생 단체인 민족통일 애국청년단 중앙본부 기획위원회에서 50여일간 숙식하며 활동
- 1988년 1월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각 언론기관에 부정선거에 관한 투서 및 미대사관에 투석 계획
- 1988년 3월 서초 경찰서 대공과에 연행 후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 1988년 5월 1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투신자살로 발표됨

### ◎ 사건경위

1988년 1월 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백악관, 독일 대사관 등에 '노태우 부정집권'을 고발하는 투서를 한 고 정희 등지는 88년 3월 경찰에 연행되어 서초 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강남 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된 뒤,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에 병원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

병원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당일 10층 정신병동 정문을 통해 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9층으로 내려간 뒤 공사중인 신축공사장 베니어판(구멍)을 뚫고 나가 투신, 2층 구름다리 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언들에 의하면 병실안에서 인권위원회, 대사관 등에 탄원서를 쓰는 등 처참하게 몸부림 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 의문점

#### ① 변사 현장에 대한 의혹

▶ 떨어진 시신에 피가 입주위에만 원형으로 고여 있다.

▶ 투신했다면 안경이 깨어져 안경알의 파편이 있어야 할텐데 안경테 밖에 없었다.- 처음 본 인부의 증언

▶ 떨어졌을 때 턱은 상하로 길게 찢어져 있고, 부딪힌 현장에 놓여있던 각목은 사방 3인치 굵기로 방향은 좌우로 놓여 있었다.

▶ 투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환자복이 영안실에서 소각되었다.

▶ 어떻게 죽든,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면, 경찰은 그 현장을 보존하거나 현장사진을 찍는게 보통인데 현장의 피를 지워버리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 사건 당시 타워크레인이 작동 중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목격자일 수 있을텐데 일체 언급이 없다.

#### ② 자살동기에 대해

▶ 등지는, 병실 안에서 항상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살과 관련 유서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점과 사고 전날에도 결혼, 수영 배우기 등 퇴원 후의 생활 설계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자살할 이유가 없다.

▶ 당시 친구의 면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사고 그 다음 주도 구체적인 약속을 함)

▶ 사고 당시 퇴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고 전날은 의사에게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제발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 ③ 병원측 주장에 대한 의혹

병원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의혹을 남긴다.

▶ 썸머타임이라 매우 밝은 시간이었고, 9층 내과병동은 물론 택시 승강장, 영안실 등에 사람이 항상 붐비는 상황인데 목격자가 병원측 관련자(경비 이선철과 10층 수간호원, 그의 2명의 인부)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정신병원이라면 경계가 엄할텐데, 어떻게 고정희 동지가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가? 당시 경비가 1층 식당에 식사하러 내려가고 남조무사가 대신 봐주고 있던 상황(그러나 경비의 진술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함)이었으며 그 사람도 바로 뒤따라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 사고 발생 후의 상황에 대해 왜 담당자들은 말을 못하는가? 사건발생에서 영안실 안치까지의 25분간이 너무 짧고(영안실 기록은 엉뚱하게 7시로 되어 있음) 이 55분간의 공백에 대해 정의있는 답변이 없었음. 이 점의 의혹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 사건 당일인 5월 13일은 오전 이후 오픈병동에서 고정희씨를 본 사람이 없으며(점심도 자기 침실에서 먹지 않았음) 폐쇄병동으로 간 것이 분명하나 경찰수사상이나 병원측에서 일체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폐쇄병동은 중환자나 발작환자를 가둬두는 곳으로 독방에 가둬놓고 밤새도록 구타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조무사중 거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 1명이 고정희동지의 사고 후 보이지 않는다고 함.)

▶ 영안실에 36일 있는동안 3-4일 간격으로 고정희 동지의 시신만 혼자 남게 했다는 점.(영안실에 사무실 정보과 형사가 자주 드나들)

④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 현승민의 말에 의하면 노왕구 의사가 '고정희씨가 정치 때문에 죽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함. 또한 사고당시 10층 수간호원이 간호대에 있었으며 10층 경비 2명중 키작고 덩든한 사람이 사고당일 경비했다고 함(병원측은 1층 경비가 임시근무했다고 함.)

◎ 유고글

【일기】

이 땅 안에서 멀쩡한 사람을 용공, 좌경으로 몰아치는 처사하고 한심한 작태는 있어서는 안된다.

◎ 추모글

【당시의 유인물】

고정희 동지의 사인을 밝혀지 않는 성모병원과 검찰을 규탄한다.

고정희 동지는 88년 3월3일 12·16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서를 청와대는 물론 미, 영, 독 대사관 등에 보내다가 서초경찰서 대공과에 연행되어 수사 2시간만에 응암동 시립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가족은 3월4일 면회후 도저히 이런 곳에 자식을 둘 수 없어 경찰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항의 3월26일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긴 후 고정희 동지는 5월13일 병원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10층에서 9층으로 뛰어내려와 구름다리 위로 뛰어내린 뒤 숨졌다고 합니다.

가족은 고정희 동지의 그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자살을 할 만한 뚜렷한 동거나 근거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타당성없는 헛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만사를 제치고 자식의 죽음해명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고정희 동지의 가족들은 이렇듯 자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병원과 경찰은 물론이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경찰에게 가라하고 경찰은 검찰로 가서 물어보라하고 검찰로 가면 병원에 가서 물어보라며 모두 책임을 떠 넘기려 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동지를 죽여놓고도 저리 뻔뻔스럽게 나오는 병원과 검찰측은 고정희 동지를 또다시 죽이는 과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독재정권의 희생물로서 동지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은 가만히 앉아 그들의 죽음을 맞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고정희 동지는 그 어느 한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고정희 동지의 사인규명을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밝혀냅니다.

-성모병원은 고정희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라.

-성모병원은 고정희 책임저라.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은 사인을 밝혀라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정 성 규 (당시 24세)



1965년	출생
1983년	충북대학교 철학과 입학
1985년	인문대학생회장 당선
1986년	학내시위 주도로구속, 1실에서 집행유예
1987년	청주 민청 총무
1988년	청주 민청 조직부장
1988년	8월 14일 수련회 도중 익사

◎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공정선거 감시단으로도 활동을 하였고, 88년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에서 지역운동을 하던 정성규 동지는 8월 통일문제 시민강좌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매향수양관에서 수련대회중 돌연한 사고로 익사하였다.

다음은 추모제에서 후배가 평소 동지를 생각하며 쓴 글이다.

"동지를 잃는 아픔 속에서도 억센 생명력이 다시 일어서야함을 알기에 못다한 말씀이 무엇임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고 나서됩니다. 형! 지켜보고 계시지요.

시련의 칼바람 속에서도 청년이 조각난 강토에 굳세게 서게 되는 그날까지 형 함께 하시는데 것이지요. 죽어서도 우리들 속에 살아계시는 생명을 압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 추모글

【추모의 글】

고 정성규 동지 7주기 추모제를 맞으며

청주청년의 통일의지를 온몸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거친 물살에 굶디고운 20대의 청춘을 마지막으로 민족의 제단에 일생을 맡긴 그리운 우리들의 동지 정성규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쉬움에 젖은 마음으로 잠시 외출하고 있다고 믿는지 어제 같

건만 정성규 조직부장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동지가 걸어 갔던 그 길을 이미 되풀이해서 지나갔습니다.

87년 민주화의 열기가 온세상 가득 넘치던 어느날 경찰 등의 폭력을 피해 근처 다방으로 함께 피신하면서도 시종일관 넉넉한 웃음으로 마치 아무일없는 사람처럼 예의 그 미소로 화답하던 동지의 모습이 이제는 잊혀져갈만한 시간임에도 더욱더 그리운 얼굴이 되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구속을 각오해야 했던 그 시절 시민통일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동지는 우리의 곁을 말없이 떠나갔지만 이후 우리들의 수많은 조국통일투쟁은 이제 완성된 통일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들의 몸을 힘껏 묶어놓았지만 우리들의 열망은 죽은 자와 산자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7년째 정성규 동지를 찾아오고 있지만 올 때 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으로 더욱 열심히 이 길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청주민청의 모든 회원들이 입회 후 거의 한 번 이상 정성규 동지 앞에서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낙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정성규 동지는 이렇듯 죽어서도 산자들의 교육부장으로 결의를 모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정성규 동지!

그렇게 우리 함께 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동지의 내일을 살아

갈 것이고 정동지 역시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어머니를 청주민청의 어머니로 모시고 언제나의 그 생각으로 비탈진 이길 매년 오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추모제를 지내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7주년, 더욱 뜻깊은 날 되었

던 것은 정동지의 동기 여러분들과 선후배,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마움에 인사를 다시 한 번 올리는 바입니다.

1995년 8월 13일  
청주민청 8기 의장 이광희 올림



## 김 병 곤 (당시 37세)

##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1964년 3월 24일 전라남도 해남 출생
- 1986년 목포전문대 건축과 재학중 미등락으로 제적  
목포 사회운동 청년연합 사무차장 역임  
목포 평강교회 청년회 총무
- 1986년 6월 6일 12시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화운동 탄압 중지와 5.18 규명, 직선제 개헌 단행을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외치며 분신
- 1986년 1953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
- 1971년 2월 부산고등학교 졸업
- 1971년 3월 서울대학교 상대 입학
- 1973년 유신반대 시위로 첫 구속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
- 19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가입
- 1985년 민민투사건으로 구속
- 1987년 구로구청 사건으로 구속(투쟁지도부 상항실장)
- 1990년 12월 6일 위궤양 및 위암3기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운명 6월 26일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사건으로 군사법정에서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과 함께 21세의 가장 어린나인으로 구속되어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김병곤 동지는 최후진술 첫마디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영광입니다'라고 외침으로써 많은 감동을 주었다. 1987년 12월 구로구청사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교도소와의 싸움 끝에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진행성 위암3기로 판명되어 88, 89년 두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1990년 12월 6일 오랜 투병생활 끝에 그토록 바라던 민주세상을 보지 못한 채 운명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김병곤 동지는 무엇보다도 조직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이었다. 김병곤 동지의 삶과 투쟁은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보기엔 미운것만 골라서 한 셈이고, 이로 인해 매 사건마다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도 장기복역 등의 보복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구로구청 사건때에는 85년 7월에 구속되어 출옥한지 5개월도 안되는 시점

이었고, 본인이 내색은 안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육체적, 정신적인 과부하가 되어 불치의 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곤 동지가 우리에게 더욱 감동을 준 것은 의연한 투병과정에서였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치유 불가능이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받고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투병을 이 사회의 구조악, 죽음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그리고 이시대 민중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셔서 문명간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오는 일이 많았다. 세계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에서 볼 때 부정,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려는 투쟁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양호한 기회와 조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조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결정론적 사고속에서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불가능의 신화에 도전하는, 그리하여 일시적, 부분적 패배속에서도 운동을 전진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힘과 밀거름이 되어 왔던 것이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 민중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할 때, 김병곤 동지의 의연한 삶과 투병과정은 바로 민중의 투쟁의지와

정신적인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히 최선을 다한 동지야말로 진정 '불가항력'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살아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 추모글

[시]

문익환

김병곤 동지여  
나는 그대가 눈을 감고 영영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정많은 그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까?  
친형제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던 동지들 곁을 어찌  
그리도 어이없이 떠나셨습니까?  
  
그대의 초인적 투병  
그것은 그냥 투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단과 독재와 빈곤과 사회악과 맞대결하는  
그대의 그 치열한 싸움  
우리 모두의 싸움은 이제 최후의 승리 일보직전입니다.  
길고도 먼 우리의 투쟁  
헛되지 않아 드디어 민족의 비원 통일이  
소원도 가능성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말 들으며  
그대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일렁였습니다.

그 눈빛,  
서해에 지는 해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해 바다에서 치솟는 아침해의  
승리였습니다.

동지여  
우리의 승리여  
평화의 찬가로 길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거라.

김기설 (당시 26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1965년 경기도 파주 출생
- 1983년 인천 수도권기통신고 중퇴
- 1984년 대입검정고시 합격
- 1988년 성남 민주화청년운동연합 가입
- 1989년 성남 노동자의 집에서 상담간사로 활동
-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본부 사회부장으로 활동
- 1991년 5월8일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폭력살인 만행 노태우 정권 타도 하자"고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

◎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가 운동에 접하게 된 것은 1988년 9월 성남민청련 창립대회에서 김근태씨의 강연을 듣고서부터이다. 동지는 즉석에서 성남민청련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성남민청련 노동분과 소속, 지역 노동운동 단체들을 지원 연대하는 사업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다 민청련이 역량부족으로 해체되면서 성남노동자의 집에서 교육상담 간사로 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동지는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광피혁 등에 입사했으나 성남 민청련에서의 활동이 드러나 쫓겨나곤 하였다. 항상 쾌활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성실하고 힘있는 활동을 하던 동지는 동료들간에 인기있고 신뢰받던 동지였다고 한다.

91년 1월부터 전민련에서 사회부장으로 일하게 된 동지는 '속초 동우전문대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태우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압을 세삼 인식하였다고 한다. 동지는 강경대 동지의 죽음 이후 범국민 대책회의에 참가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던 중 분신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동지의 여자친구와 여러 사람을 불법연행하여 밀실 감압수사를 통해 유서대필이라는 상식이 하의 조작으로 그를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검찰의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희생자인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은 4년간의 실형을 살았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창생들 기억 속의 김기설 동지는 확실한 성격, 원만한 친구관계를 가진 모범생으로 남아있다. 어머니를 4살 때 여의었지만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그늘 없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문득문득 그와의 대화 속에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뒤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중 동지는 군대에 입대한다.

동지는 88년 9월 3일 성남 민청련 창립대회에 나붙은 김근태씨 강연 포스터를 보고 그곳에 참석, 바로 그날 민청련 회원이 되었다. 89년 성남 노동자의 집 상담간사로 들어가면서 그는 새롭게 이 땅의 노동현실에 시선을 돌리게 된다. 90년 조광피혁에 입사, 동료들간에 인기있고 신뢰받던 동지였다. 외아들이라 장가를 일찍 가야 한다며 여자친구 소개해 달라고 억살을 떨던 모습, 태어나서 부모님께 효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눈물이 고이던 그때의 그를 기억하며 동지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90년 11월부터 동지는 전민련에서 일하게 된다. 꾀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했던 동지는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이 터지자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가 외롭게 투쟁하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노동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던 동지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 원진레이온 사태가 사회쟁점화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원진 피해 노동자들은 분

신하기 하루전인 7일 노조를 방문하여 걱정을 함께하던 김기설 동지를 떠올리며 갑자기 접한 비보가 믿어지지 않는다. 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 유고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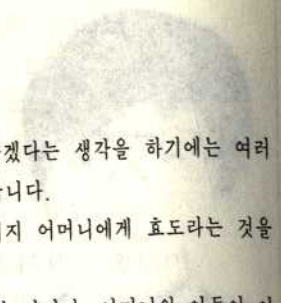
【유서 1】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동지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고민속에서 얻은 결론이겠지요. 노태우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민자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지금의 정권은 꼭 타도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과 아픔을 안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죄악스러운 행위만을 일삼아온 노태우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민중권력 쟁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유서 2】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석 인천위원장님께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기설



墓 米 確 認

김영환 (당시 26세)



1965년 2월 15일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  
1984년 2월 삼척고 졸업  
1984년 3월 고려대 불문학과 입학  
1989년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한미군사관계, 평화, 군축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연구  
1991년 4월 7일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

◎ 사건경위 및 의문점

김영환동지는 명지대생 강경대동지가 운명한 그 다음날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김영환동지는 4월 25일까지 자취방에 있는 모습을 집주인이 보는 등 생존한 모습이 보였으나, 그후 행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한겨레사회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민족문제, 군축문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정력적인 연구와 논문발표 등의 활동을 벌였고, 죽음 직전 운석양후원사업회 관계자들을 만나 군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았으며 그후 기무사 요원이 그의 행적을 감시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사인에 대해서 밝혀지지를 못하고 가족과 동료들에 의해 장례가 치루어졌다.

1. 부검 결과

1) 사망원인

대동맥이 파열되어 다량의 혈액이 누출된 것이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부검결과 심장에서 9-10센티 위에 있는 대동맥이 5센티정도 찢어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고인은 "해리성 동맥유"로 87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인의 동맥이 확대되어 있어 파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망시간

사체 냉동 후(냉동시각 27일 오후4시경) 24시간 이전으로 파악되었다. 즉, 26일 오후 4시 이전인데 고인이 25일 오후 6시에 전화를 하였으므로 사망시간은 25일 오

후 6시에 26일 오후 4시사이로 추정된다.

3) 외부충격 가능성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충격이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외부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액 채취결과

완전한 소화상태가 아니다. 불확실하나 음식물 섭취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의문점.

1) 커피포트에 끓고 있던 물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6시에서 26일 오후 4시로 추정할 수 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은 27일 오전 9시 20분이었다. 따라서 25일 오후 6시에서 26일 오후 6시 사이에 커피포트 전원을 넣고 물을 끓였다면 커피포트의 물은 27일 오전이면 벌써 증발했어야 했다.

2) TV와 26일 저녁 8시에 켜져있던 형광등

TV(채널9)를 켤 수 있는 시간은 25일 오후 12시 이전이다. 고인이 25일 12시 이전에 TV를 켜놓은 채 사망했다면 역시 커피포트가 의혹으로 남는다. 또한 25일 저녁에 켜져있던 불이 26일 오후 8시에 켜져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3) 사체발견 당시 고인의 누운 모습

대부분의 경우 동맥이 5센티 이상 찢어진다면 가슴

이 찢어지는 격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은  
요를 깔고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반듯이 누워 있었다.

4) 위액의 상태와 사망시간

음식물 섭취 후 2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그렇다면 25일 오후 6시에 음식물을 섭취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므로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8시 전후이다. 이는  
25일 오후 8시부터 자동응답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으므로  
25일 8시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그  
러나, 커피포트, 25일 저녁에는 꺼져 있었으나 26일 오후

8시에 켜져있던 불과 모순된다.

3. 묻혀버릴 한 젊은이의 죽음

고인의 죽음은 분명 많은 의혹만을 남기고 있다. 특  
히 고인이 양심선언한 군인들과 여러차례 만났었고 그들로부  
터 4월 16일경에 "군복무 기간 단축투쟁"에 대한 글을 전해  
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의혹은 증폭된다. 그러나 부검결과 동  
맥파열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동맥이 평소에도 약했으므로 결  
국 고인이 동맥파열로 죽은 것으로 공식화될 것이다.



- 1966년 제주도 남제주군 출생
- 1982년 2월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 1985년 3월 제주대 인문대 사학과 입학
- 1987년 군입대로 휴학,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자진 중퇴함
- 1989년 서귀포 나라사랑 청년회 가입
- 1990년 UR반대와 제주도 개발 특별법 반대투쟁
- 1991년 11월7일 서귀포 나라사랑 청년회 옥상에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저지"등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투신

◎ 동지의 삶과 죽음

제주도를 끔찍이 사랑했던 양용찬 동지는 89년 서  
귀포 나라사랑 청년회에 가입하여 낮에는 타일공으로 일하  
면서 청년회 내의 '농민사랑' 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  
였고, 그 후 농민사랑 대표로서 활동하였다. 양동지는 '서  
귀포지역 문제 대책위'에 참가하여 서귀포 지역 개발 문  
제, UR 과 제주도 개발 특별법,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지  
역 감골문제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  
였다. 또한 양용찬 동지는 '세계의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  
다는 우리의 삶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 제주도  
를 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특별법 저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나의 하루'中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나저나 오늘은 6시 이전에는  
일을 끝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모임에 늦지 않고 참석할 수  
있다. 벌써 사계다. 일터에 도착한 것이다. 차창 밖을 내다  
보니 몸이 움츠러든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바람이 몰아치  
니 흡사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차에서 내려 단숨  
에 3층까지 뛰어 올랐다. 하지만 3층은 더 강한 바람이 불  
어온다. 일이 아무리 좋지만 이런 날에 하루종일 일할 생각  
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연장을 내려놓고 빈 드럼통에 나  
무를 주워 다가 불을 피워 놓았다. 이제 살 것 같다.

몸이 풀리니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시멘  
트를 가져와 물에 타서 반죽을 만드니 매형이 준비를 끝내  
고 벽에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 동안에 나는 밑에  
내려가 타일을 운반하고, 시멘트를 어느 정도 바르자 들이  
서 붙이기 시작했다. 해는 이제 떠오르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온다. 시간을 보니 12시10분전이다. 일할 때마다 느끼  
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하다가는 야간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때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을 끝내지  
못해도 6시 정도에 먼저 가야 하기 때문이다. 매형에게 이  
야기하니 시간되면 먼저 가란다.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미안  
해서 먼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드디어 점심식사다. 식  
사를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5일 후면 막내아들 결혼식이니  
오늘 중으로 일을 끝내야 남은 날짜에 끝마무리하고 가구  
를 들여놓아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금은 부럽  
기도 하고 조금은 비참해지기도 한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3층 건물을 지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은 몸  
뚱아리 하나뿐이다. 만약 내가 결혼 한다고 해도 집에서 집  
을 지어준다고 할 형편은 못된다. 하지만 끊어오르는 스물  
다섯의 피가 있다.

◎ 유고글

【유서】

나는 우리의 삶과 뼈를 갈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

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써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법 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어머니 아버지 그 동안 효도 한 번 못해 드리고 격정만 꺼쳐 드리다 가장 큰 불효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정으로 사랑하고 항상 함께 있고픈 고향 친구들. 자네들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었고 따스하게 맞아 주었다. 고맙다. 술 너무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란이 누나. 신세만 지다 이번 결혼식 때에는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떠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하고 싶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편지】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당신은 우리 것도 남아 도는데 왜 외국 농축산물을 수입하는지 농민의 종으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몇 억씩 들이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지 무척이나 궁

금해 하였지요.

대학에 다니다 휴학하고 내려온 똑똑한 동생이 미국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대 매국 세력이 어떻고 부지런히 설명해 댔지만 우리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4·3전사(戰史) 속에서 왜 농축산물이 개방되고 왜 조합장 선거에 몇 억의 돈이 필요하고 왜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으며 평생을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은 빚더미와 빼앗기다 남은 조그마한 밭패기 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마냥 불룩 튀어나온 배를 채워 당신의 굶은 허리로 일구어낸 자갈밭을 빼앗아간 저들 당신의 호미로 이 아들의 쟁이로 쫓아내야만 합니다. 어머님 핵과 군화밭이 이 강토 이 산하를 윤간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은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종합개발은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이 폭력이,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기 저 한라산의 철쭉은 우리의 시퍼런 한을 품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아들이 소위 엘리트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부지런한 농사꾼이기를 원하십시오. 철쭉꽃 입에 물고 쓰러져간 4·3전사(戰史)들이 부활하는 자주 민주 통일의 꽃 협죽도이기를 기도하십시오.

# 살아서 만나리라 장기수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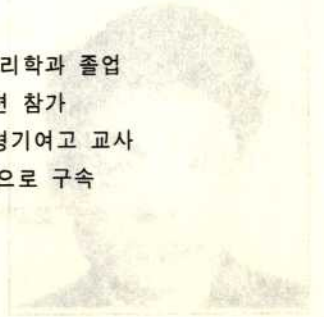


**'인혁당 사건' 희생자 명단**

**김 용 원 (당시 4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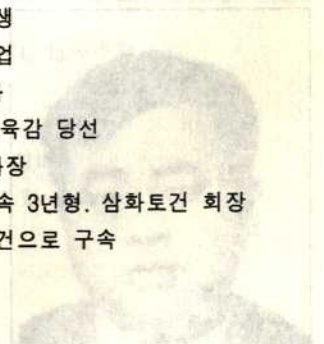
1935년 **보통** 경남 함일군 출생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4.19후 서울대 학생민통련 참가  
 1964년 **후진**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 경기여고 교사  
 1974년 4월 **후진**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도 예 종 (당시 51세)**



1924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시 서악 출생  
 대구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북상주고등학교 교사  
 4.19후 경북 영주군 교육감 당선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  
 1964년 1차 인혁당 당수로 구속 3년형. 삼화토건 회장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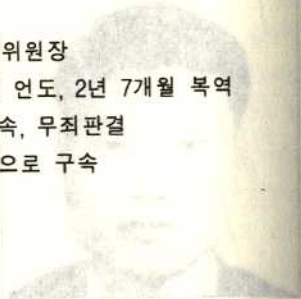




서도원 (당시 5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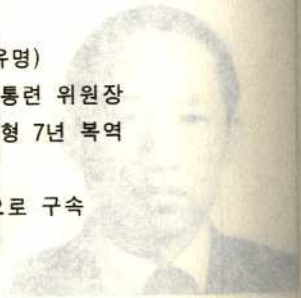
1923년 3월 28일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출생  
 진주고보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4.19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5.16후 혁명재판에서 7년 언도, 2년 7개월 복역  
 1967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 무죄판결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이수병 (당시 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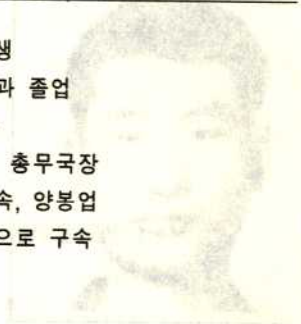
1936년 12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출생  
 부산사범, 경희대학교 :  
 만적의 난(졸업논문으로 유명)  
 4.19후 경희대학교 학생민통련 위원장  
 5.16후 혁명재판에서 15년형 7년 복역  
 삼락 일어학원 강사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송상진 (당시 4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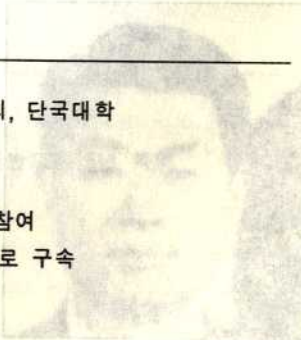
1928년 9월 18일대구시 동구 백암동 출생  
 대구사범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공산국교, 대구국교 교사  
 4.19후 민주민족청년동맹 총무국장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양봉업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하재완 (당시 44세)



1931년 1월 10일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 단국대학  
 1950년 입대  
 1957년 중사 제대. 양조장 경영  
 4.19후 민주민족청년동맹 참여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1974년 4월 9일 사형집행



여 정 남 (당시 30세)



- 1945년 5월 대구시 남일동 출생.  
경북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투쟁 주도로 제적 군입대.
- 1971년 4월 정진회 필화사건으로 구속.
- 1972년 11월 10일 유신반대 포고령위반으로 구속.
-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우 흥 선 (당시 44세)



- 1931년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 단국대학  
6.25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 육군 대위예편
-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년형
-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 1974년 4월 9일 사형집행

장 석 구 (당시 48세)



- 1927년 9월 19일 서울 출생
- 1949년 7월 단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9월 평화신문사 기자
- 1955년 ~ 61년 한국일보 대구지사장  
대구일보, 민족일보 기자
- 1962년 ~ 63년 대구 매일일보 기자
- 1963년 이후 한일협정 반대와 3선개헌 반대운동에 참가
- 1974년 6월 14일 인혁당 재건위 구속
- 1975년 10월 15일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전 재 권 (당시 59세)



- 1927년 10월 12일 경북 상주 출생
- 6.25전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 복역  
동아일보 대구주재 기자
- 4.19 사회당 참여  
양복 옷감 도매상
- 1974년 4월 인혁당 재건위 구속  
15년형 선고됨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1986년 5월 7일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유진곤 (당시 51세)



1937년 4월4일 경남 김해 출생  
 1953년 4월 부산 사범학교 입학  
 1954년 부산사범 사회과학 이론연구회 '암장' 회원  
 1956년 부산 사범 졸업, 울산 신암국교 재직  
 1964년 김해연구소 재직  
 1974년 5월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무기형  
 1982년 12월13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 투병생활  
 1988년 5월5일 옥중 생활 후유증으로 운명

### 인혁당

#### 인혁당사건 관련 희생자(4.9열사)

다음 글은 제2차 인혁당 사건의 진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글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전재한다. 이 글은 신동아 85년 9월호에 이상우씨가 기고한 글이다.(년도 표기는 97년 현 시점으로 바꾸었습니다.)

#### 의혹과 물의로 점철된 인혁당사건

박정권 18년을 통하여 가장 오랜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의혹과 물의를 빚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인민혁명당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대로 처리된 것이었다.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제1심, 항고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처리된 사건이었다.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혁당사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외로부터 심한 의혹을 샀다. 일부 사람들은 인혁당사건이란 조작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

다. 과연 그러했을까?

관련 피고인 8명이 처형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된 지 22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인혁당사건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 않다. 뭔가 꺼림직한 여운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처형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아직도 응어리진 한을 품고 세월을 살고 있다.

#### 33년 전의 첫번째 인혁당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것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4년 8월 14일이었다. 이날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소집,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중이다』고 발표했다. 김형욱 부장이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띄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중, 사회대중당 간사장이던 허탁,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첩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다.

인혁당은 창당후 조직을 확대해오다가 1964년 4월 북괴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동당 중앙상임위원회인 도예중,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 학생대모를 유발토록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대모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 했다.

인혁당은 학생, 언론인등을 포섭,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대모를 계속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조직망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대모 주동자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부,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

당시 인혁당사건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도예중(40.무직), 박현채(30.서울상대강사), 정도영(39.합동통신 조사부장), 이재문(31.『대구매일신문』기자), 허탁(31.부산성래국민학교교원), 박상홍(45.서적상), 김경희(27.민중서관원), 전무배(33.『서울신문』기자), 박중기(29.한국여론사 취재부장), 양준우(29.무직), 서정복(24.서울문리대 철학과 4년), 김정강(24.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경남(22.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중태(24.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현승일(21.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도현(21.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승균(26.성균관대 동양철학과 4년).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부부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다가 64년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보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이로 말미암은 검찰내부의 분규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살이었다.

중앙정부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의 담당 검사진은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최대현검사, 김병우검사, 장원섭검사였다.

그들은 만 18일간 거의 철야로 수사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부의 송치 결과와는 달리 기소할만한 내용의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의 두번째 사건

유신 2년째 접어든 그해 정국은 재야세력과 학원가

의 반체제 데모 때문에 소란하기 그지 없었다. 일부 언론인, 문인, 대학교수, 종교인, 재야정치인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가는 반정부 데모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정부는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비상권한인 긴급조치권의 발동으로 이를 봉쇄하려 했지만, 반체제의 불길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74년에 들어와 「3.4월 위기설」이 떠도는 가운데 4월 3일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반정부 데모가 터졌다. 이들이 살포한 선언문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란 명의로 되어 있었다. 바로 이날 정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다.

그 내용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박대통령은 「작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화 양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이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절차에 따라 긴급조치를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재건위 조직과 재일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이들은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 민청학련의 배후 주동인물로는 ① 전인혁당당수 도예중과 여정남 등의 불순세력, ② 재일조총련 비밀조직의 조원인 광동의와 광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胎塗舛濤濤와 ??? 등 일본인 2명 ③ 기독교학생총연맹 간부 진 ④ 이철, 유인태 등 주모급 학생운동가와 유근일 등이 다.』

#### 10년만에 재현된 인혁당사건의 내용